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6년 9월 13일(일) 제1605호

온누리사역축제 '하이브리드 교회'

10월 13~15일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및 부속실
주제 강의, 선택 강의, 오픈 집회 ... 리더십 필수 참석

2026 온누리사역축제(OMC, Onnuri Ministry Conference)가 오는 10월 13일(화)부터 15일(목)까지 '하이브리드 교회'를 주제로 막 오른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부속실(두란노홀, 비전홀, 사랑홀 등)에서 주제 강의, 선택 강의, 오픈 집회 등이 이어진다.

2026 온누리사역축제 '하이브리드 교회'에서는 이재훈 위임목사가 총 여섯 차례 주제 강의를 한다. '하이브리드 교회'의 의미와 구체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온누리교회 14개 사역본부(공동체본부, 예배본부, 양육본부, 가정사역본부, 사회선교본부, 여성사역본부, 장애인 사역본부, 전도사역본부, 회복사역본부, 선교사역본부, 국제사역본부, 차세대사역본부, 대학청년사역본부, 미디어사역본부)별 선택 강의도 이어진다.

저녁 오픈 집회는 13일 김우준 목

사(지구촌교회), 14일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15일 이재훈 위임목사가 말씀을 전한다.

2026 온누리사역축제는 온누리교회 리더십 및 성도, 국내 체류 선교사, 협력 기관 리더십, 타 교회 성도 등이 대상이다. 온누리교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순장, 각 사역팀 리더십은 최소 하루 이상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임직 훈련생은 하루를 선택해 오전부터 오후까지 모든 일정에 참석해야 한다. 행사 기간 온누리교회의 모든 스쿨과 강의, 기도 모임은 온누리사역축제 참석으로 대체된다.

온누리교회 성도는 소속 공동체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은 성도들은 'ONCARE' 앱(QR코드 참고)을 설치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본당에서 진행되는 주제 강의와 선택 강의를 포함해 강의 7개를 청



지난해 온누리사역축제(OMC) '지금 여기, 사도행전'.

강하면 2학점을 부여한다. 학점 관련 자세한 사항은 행사 당일 로비

에 설치되는 '학점관리데스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215-3234(3122, 3534)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2026 사르밧 프로젝트 시작

10월 11일까지 순, 개인 현금 및 나눔대상자 접수

'2026 사르밧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10월 11일(일)까지 순과 개인별 현금 및 나눔대상자 접수를 받는다. 사르밧 프로젝트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추수감사절 감사의 쌀'과 '성경책'을 전달하는 사역이다.

참여를 원하는 순 또는 개인은 10월 11일까지 각 캠퍼스 지정 계좌로 현금하면 된다. 현금액은 쌀 20kg 한 포대 가격인 65,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순 형편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 순 단위로 참여할 때는 입금자명에 공동체, 다락방, 순 이름을 입금 자 이내(예: 한강마리아2순)로 적고, 개인은 이름과 생년월일(예: 온누리851006)을 적으면 된다. 개인 현금금 연말정산에 반영된다. 송금 계좌는 서빙고 하나은행 573-910019-14805, 양재 하나은행 573-910021-35705다. 다른 캠퍼스는 각 캠퍼스 지정 계좌를 이용하면 된다.

나눔대상자 추천도 받는다. 선정 순위는 온누리교회 공동체 소속 성도, 외부 기관, 외부 개인 순이다. 신청서는 공동체를 통해 10월 11일까지 이메일(서빙고: 26thanksgiving@naver.com, 양재: hyomin2021@naver.com)로 보내면 된다. 이메일에는 공동체 담당목사와 대표장로를 참조인으로 포함하고, 본문에는 '승인 확인 문구'를 꼭 기록해야 한다.

문의: 02-3215-3434(서빙고), 각 캠퍼스 담당자

9월 비전현금, '군선교' 후원

9월 12~13일 봉헌하는 비전현금은 '군선교'를 후원하는 데 사용한다. 온누리교회는 '군선교사역팀'과 입대 예정자를 위한 '데이빗 스

쿨' 등 장병들과 그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도모임을 운영하고 있다(관련 칼럼 13면).

문의: 010-3225-3820

선교지와 복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세요

9~10월 CGN 정기후원의 달 ... 19~20일 정기후원 약정행사

9월과 10월은 CGN 정기후원의 달이다. '선교지와 복음을 잇는 다리가 되어주세요'를 주제로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와 춘천새순교회, 방주교회, 안양제일교회 등 협력교회에서 정기후원 행사가 열린다.

9월 19일(토)과 20일(일)에는 국내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에서 CGN 정기후원 약정 행사를 개최한다. 9

월 20일(일) 일요일예배에서는 다양한 이벤트를 한다. 협력교회에서는 10월 중에 CGN 정기후원 행사를 열 예정이다.

한편, CGN이 정기후원의 달을 맞아 특집 다큐멘터리 '땅끝의 증인들'을 공개한다. 9월 19일(토) 자정 기독교 OTT 풍당, 같은 날 오전 10시 CGN 유튜브, 9월 20일(일) 오전 10

시 30분 CGN TV에서 방송한다.

디지털 사각지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지원하는 '드림온브릿지' 캠페인도 시작한다.

CGN 정기후원은 전화(02-796-2243) 또는 홈페이지(cgntv.net), 모바일로 참여하면 된다. 기존 후원자는 증액이 가능하고, 가족, 전도대상자 이름으로 후원할 수도 있다.

'2026 전도엑스포' 9월 13일 서빙고, 양재

'2026 전도엑스포'가 9월 13일(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이천만광장과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 앞 원형광장에서 열린다. 전도엑스포에서는 전도사역의 의미와 유익, 필요성을 안내하고, 전도사역본부 사역팀을 소개한다. 여성민 목사(전도사역본부장)는 "많은 성도님이 전도엑스포에 참여해서 전도에 더 큰 관심과 사명을 갖길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010-5219-8707

이주민연합수련회 하비스트 'Reset'

2026 이주민연합수련회 '하비스트(Harvest, 이하 2026 하비스트)'가 9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파주 영산수련원에서 'Reset(To Follow Christ)'을 주제로 막 오른다. 16개국에서 온 이주민과 차세대가 한 자리에 모일 예정이다.

2026 하비스트에 함께할 자원봉사자 150명도 모집한다. 참가신청은 9월 15일까지 QR코드로 하면 된다.

회비는 2박 3일 7만 원, 1박 2일 및 당일 참가 4만 원(티셔츠 무료, 숙소 요청 가능). 이주민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31-491-9650
후원: 하나은행 573-810033-13205 온누리교회



참가신청 QR



후원영상 QR

온누리교회 미래성장분과위원회
'AI 시대의 제자도'에 대한

설문조사



나를 따르라

Follow Me! Deny yourself and take up the cross (Mt 16:24)

주일강단



이재훈 위임목사

사사기 강해(1) 절반의 순종이 남긴 것

사사기 2:1~9

나무로 된 물건을 다루다가 손에 작은 가시가 박혀본 경험이 한 번쯤 있으실 것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제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가시는 시간이 흘러갈수록 문제를 일으킵니다. 염증을 일으키고, 그 부위가 부어 오르게 합니다. 계속 신경 쓰이게 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너희가 남겨둔 것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뽑지 않고, 뽑지 못하고 남겨둔 것이 우리 삶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합니다.

<사사기>는 3천 년 전 기록이지만, 오늘의 거울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서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어서 모두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다”고 말씀합니다. 절대적 기준을 부정하고 모두가 각자의 의견을 절대화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사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책이 소중하고,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와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합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12명의 사사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 사사들이 역사의 주인공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흠이 많았습니다. 겁이 많았던 ‘기드온’, 경솔했던 ‘입다’, 정욕에 흔들린 ‘삼손’까지 흠이 많았던 이들입니다. 그 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순간을 기록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거듭 배신을 당하면서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사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

<사사기> 1장은 서론 역할을 합니다. 1장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기록을 보면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각 지파에 대하여 나오는 기록들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쫓아내지 못하였다”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와 함께하셨습니다. 그들은 산간 지대를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평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철로 만든 전차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삿 1:19).

‘철로 만든 전차’를 ‘철병거’라고 합니다. 1장 27절과 28절에 므낫세 지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강해지자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습니

다. 에브라임 지파, 스불론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파의 이름은 바뀌었지만, “쫓아내지 못했다”는 문장이 반복됩니다.

히브리어 표현으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 없는 것을 지적합니다. 처음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거리를 두고 살도록 허용되는 정도였습니다. 쫓아내지 않고 허용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다음 단계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들어와 삽니다. 그다음에는 거꾸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 가운데 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하여 아셀 사람들도 그 땅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삿 1:32).

아셀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에게 밀려서 산지로 쫓겨가게 됩니다. ‘밀렸다’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압제당할 때 쓰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보낸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살다가 결국 쫓겨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철병거 때문에 그랬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의 힘이 강해지고, 가나안 사람들을 부리는 일꾼으로 쓰기 위해서 타협을 한 것입니다. 무리한 전쟁보다 실리 있는 공존이 낫다는 생각이 그들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미세한 균열, 절반의 순종, 결국 전체의 불순종으로

<사사기> 2장 말씀에서 여호와와 천사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와 말합니다. 1장 내내 반복되는 단어가 ‘올라간다’였습니다. 유다가 올라가고, 그다음에 요셋 가문이 올라가고, 마지막에 여호와와 사자가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사기> 1장은 전체 흐름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쫓아낼 수 있는 백성들을 여러 이유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쫓아내지 않다가 그들과 섞이게 되고, 언약을 맺고, 결국 단 지파가 그들에게 쫓겨 나가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호와와 천사가 길갈에서 보김으로 올라가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려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땅으로 인도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부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1~2절).

돌이켜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고성이 어떻

게 무너졌습니까? 철병거보다 견고한 성벽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몇 장을 앞서가면 드보라와 바락이 철병거 900대를 앞세운 시스라의 군대를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철병거 종류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 다른 것입니다. 마땅히 순종할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습입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서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절반의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핑계 대고 변명하는 모습,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납니다. 이미 <사사기> 1장 첫 장면에서도 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다가 올라가서 이겼지만, 형제 시므온을 불러서 함께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에는 마음이 놓이지 않은 것입니다. 최대한 인원을 많이 확보하려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섬세한 머뭇거림, 작은 불신앙이 결국 철병거 앞에서 후퇴하고 타협하는 일들을 만든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과 비슷합니다. 정탐꾼은 자신들의 능력을 적의 능력과 비교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에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불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미세한 균열이 나타나고, 그것이 절반의 순종이 되고, 결국 전체의 불순종으로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저마다 철병거처럼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도 있습니다. 세상의 계산법으로 교회 사역을 내다보면 할 수 없는 게 전부입니다. 철병거 앞에서 변명하는 모습이 많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가나안화

그때 길갈에서 여호와와 사자가 올라옵니다. 출발지가 주목을 끄니다. 길갈하면 <여호수아>에서 떠올라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길갈의 열두 돌,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첫발을 내디뎠던 곳, 광야에서 미루었던 할례를 행함으로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던 곳,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새롭게 해주셨던 출발지입니다. 은혜의 자리요, 영적 전쟁의 출발지입니다.

그 길갈에서부터 왔다는 것은 장소가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그냥 나타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사자가 온 곳이 길갈입니다. ‘하나님이 왜 길갈에서 너희들을 새롭게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역사적 기억을 되돌려 준 것입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와서 말한 것은 추궁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고, 너희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을 어기지 않고, 대신 죽으시고,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언약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한 책망의 내용은 실패가 아니라 타협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서 백성은 쫓아내지 못했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2장 2절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다.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이고, 실패가 문제가 아니라 타협이 문제”라고 책망하십니다. 그들은 왜 타협했을까요? <사사기> 1장 28절을 보면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강성해졌을 때, 가나안 족속을 노동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습니 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있을 때, 그 힘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그들을 부리려고 했습니 다. 그 힘으로 타협한 것입니다. “진멸하라”고 하신 명령을 “그 백성을 활용하라”라고 왜곡해 버린 것입니다.

<사사기> 1장 첫머리에 보면, 유다가 가나안 땅 아도니 베섹을 사로잡고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릅니다. 포로를 육보이는 가나안 전쟁의 풍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첫 전투에서부터 심판하러 온 그 대상을 향해서 가나안 민족의 방식으로 행하는 모습이 <사사기> 전체에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모습이 아닌 이방인들의 흉내를 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전체의 주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가나안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백성처럼 닮아가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앞에 신실하게 되면 누구를 닮아갑니까?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 그 백성들을 닮아갑니다.

절반의 순종이 가져온 큰 위험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을 것이 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요, 그들의 신은 너희에게 뱀이 될 것이다”(3절). 남겨둔 민족은 가시가 되고, 남겨둔 신들은

뱀이 됩니다. 가시는 바깥에서 찔러오는 고통이요, 뱀은 미끼를 놓아서 잡아먹는 도구입니다. 그들 스스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민족이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을 사로잡는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절반의 순종이 얼마나 큰 위험을 가져오는지를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따르지도 않았습니 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나안과 타협하며 실리를 추구하고, 우상도 따랐습니 다. <사사기>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절반의 순종은 결국 전체의 불순종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풍요의 신 바알, 아스다롯, 풍요와 다산의 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져다준다고 했던 노동력, 일하지 않고 편리하게 살려고 했던 편리주의, 이 모든 것들이 가시와 뱀이 되어서 그들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절반의 순종은 무엇인가? <사사기> 강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팀 켈러(Tim Keller) 목사님은 이 장면을 ‘절반의 제자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절반만 따르는 삶은 결국 전부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회개가 아니라, 후회의 눈물

“여호와와 천사가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말을 하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보감이라고 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습니다”(4-5절).

온 회중이 통곡했습니다. 그 자리에 ‘우는 자들’이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흥의 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눈물이 있고, 돌이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변화는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으며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 다”(11절).

눈물은 흘렸지만, 그 눈물은 금세 마르기 마련입니다. 회개라고 하기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 다. ‘보감’이라는 장소를 언급한 것도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와서 보감이라는 곳에 왔습니 다. 보감은 벤엘이라는 지역 바로 옆입니다. 하나님의 집, 아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바로 그곳에서 백성들이 울며 모였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닙니다. 진정한 돌이킴의 회개입니다. 잠깐 감동하고 눈물 흘리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죄가 아프고 끔찍해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가 두려워 흘린 눈물입니다. 회개가 아닙니다. 후회의 눈물일 뿐입니다.

<사사기>는 눈물의 책입니다. 2장은 보감에서의 눈물로 시작해서 벤엘에서의 눈물로 끝 납니다. 첫 울음이 진정한 돌이킴의 회개가 되지 못했기에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사사기>의 순환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악을 범하고, 고통당하고, 고통 속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로 구원해 주시고, 그러나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러나 여호와와 사자의 말에 희망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1절b)

<사사기>는 어둡고, 눈물의 역사였지만 우리에게 복음의 소망을 주는 이유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사기>가 혼란한 반역의 역사임에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끝까지 붙잡고 계십니다. 사사들은 그 언약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백성들은 절반의 순종으로 가시와 뱀에 찔리고 빠졌습니다. 우리가 뽑지 않은 가시, 스스로 자초한 죄악이 만든 가시들을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심으로 머리에 쓰셨습니다. 보감에서 백성들은 눈물 흘렸지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겹세마네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여호와와 천사’ 혹은 ‘여호와와 사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예외가 아닌 이상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시적인 나타나심으로 해석합니다. 길갈에서 보감으로 와서 그들에게 언약을 확실히 지킬 거라고 선언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불순종의 가시와 뱀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이르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오늘 사사 시대,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감에서 흘렸던 이들의 눈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 절반의 순종이 다음 세대 전반적인 배교가 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타협이 자녀들에게 가시와 뱀이 됩니다. 이 시대의 위기는 조상들이 한 절반의 순종이었고, 우리 절반의 순종이 다음 세대에 불신앙으로 변저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길갈에서부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걸음이 아니라, 언약을 결코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분으로, 우리의 가시를 온전히 제거해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새 언약에 믿음으로 참여하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언약의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언약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What Would You Say?)

배아도 인격체일까?

대화를 나누던 중에 누군가 “배아는 인격체가 아니다. 그저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기에 그 단계에서 낙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배아가 인격체인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인간을 인격체로 만드는지 물어야 한다. 그리고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우리의 인격성은 우리가 가진 능력에 달려 있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배아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처럼 기능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배아를 인격체로 인정하기를 주저한다. 예를 들어 배아는 생각하거나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마취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혼수상태에 있는 사람, 잠들어 있는 사람 역시 생각하거나 말할 수 없다. 신생아도 성인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말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들은 여전히 인격체인가? 당연하다. 성인들 사이에서도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우리의 인격성은 나이에 달려 있지 않

다. 배아가 ‘온전한 인격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나이가 인격성을 결정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만큼 나이가 들어야 하거나 특정한 모습을 갖추야 비로소 ‘인격체’가 되는 것이라면, 반대로 나이가 너무 들어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인격성을 잃게 되는가? 과거에는 피부색이 밝은 일부 사람들이 피부색이 어두운 사람들을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이었는지 분명히 알고 있다. 피부색을 이유로 어떤 인간이 다른 인간의 인격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면, 나이가 더 많다는 이유로 더 어린 인간의 인격성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

셋째, 우리의 인격성은 인간이라는 본성에서 비롯된다. 어떤 존재가 무엇인지를 판단하려면 그 존재가 현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만이 아니라, 그 존재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새가 날아다니는 것은 새의 본성에 속한다. 어떤 새가 너무 어리거나 다쳐서 대부분의 새처럼 날 수 없다고 해서

새가 아닌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배아나 신생아, 또는 심각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말하지 못할 수는 있다. 그러나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본성에 속한다. 비록 그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않았거나 손상되어 있을지라도 말이다. 이것이 우리가 멸종위기 동물의 새끼를 그 부모와 마찬가지로 보호하는 이유다.

인간에게는 능력이나 외모,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가 공유하는 본성이 있으며, 바로 그것 때문에 모든 인간은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 다른 사람의 능력이나 외모를 기준으로 그 사람의 인격성을 부정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진다. 모든 인간이 ‘인간’이라는 본성 때문에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는 생각을 버리는 순간, 인간의 가치는 권력을 가진 집단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겨지게 된다. 한때 여성이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다. 한때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다. 한때 유대인이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다.

우리는 성별이나 인종, 민족을 이유로 사람을 부당하게 대하는 것을 마땅히 비난한다. 그런 특성들이 우리의 인간 됨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배아도 마찬가지다. 배아에게는 우리가 가진 것과 똑같은 능력이 아직 모두 갖추어져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배아가 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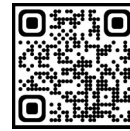
“나도 당신과 똑같은 인간이다. 단지 조금 더 어릴 뿐이다.”

그러므로 누군가 “배아는 인격체가 아니라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기에 낙태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한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라.

“우리의 인격성은 우리가 가진 능력에 달려 있지 않다.”

“우리의 인격성은 나이에 달려 있지 않다.”

“우리의 인격성은 인간이라는 본성에서 비롯된다.”



원문 영상 QR

기독교 세계관으로 살아가기-성경적 세계관이란?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가?



장관수 장로
(동대문중앙공동체,
온누리세계관학교)

인간은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다. 무엇이 옳고 좋은지, 그리고 무엇이 행복한지 판단한다. 그러나 모든 판단의 바탕에는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놓여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지만, 일상에서는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과 마주한다. 성공과 물질, 경쟁과 성취, 개인의 행복과 욕망이 어느새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우선시하기도 한다. 신앙과 삶의 기준이 이원화되는 현상이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고 증언한다. 모든 존재의 시작과 과정과 최종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면, 인간의 사고와 가치관, 삶의 방향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의 출발점이다.

성경은 세상과 인간의 역사를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서사(Meta-Narrative)로 제시한다. 첫째, ‘창조’는 인간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 1:1)라는 말씀처럼, 인

간은 우연히 발생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존재다. 따라서 인간의 가치는 능력이나 재산, 사회적 지위와 성취로 결정되지 않는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는 ‘문화명령’(창 1:28)을 부여하셨다. 가정과 일터, 학문과 예술, 경제와 사회 등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야 할 삶의 장(場)이다.

둘째, 인간은 ‘타락’했다. 타락은 단순히 단일 계명을 위반한 사건에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배제하고, 인간 스스로 중심이 되려 한 사건이다. 이때부터 인간은 “하

할 때 죄와 죽음, 악의 권세는 소멸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될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현재에만 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현재의 삶에서 그 나라를 구현하는 존재다.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인본주의, 마르크스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등은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고, 각자의 경험이나 사회적 합의를 기준으로 삼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선지자 아모스가 선포했듯, 하나님은 그의 백성 가운데 ‘다림줄’을 두셨다(암 7:8).

성경적 세계관을 상징하는 핵심 도구가 ‘다림줄’이다. 다림줄은 건물을 시공할 때 벽면의

은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의 생각과 삶의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어야 하고, 타인을 판단하기에 앞서 자신을 먼저 점검하는 기준이어야 한다.

자기 생각이 말씀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추구하는 성공이 하나님 나라와 연계되어 있는지,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 진리와 사랑이 내재해 있는지, 선택의 과정에 공의와 은혜가 흐르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들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하나의 물음으로 귀결된다.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의 교리적 명제를 많이 습득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와 사랑, 공의와 은혜를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요 17:18)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회피하는 존재가 아니다. 세상 한가운데 거하지만, 세상에 편승하지 않는 사람, 타인을 사랑으로 섬기되 진리를 타협하지 않는 사람, 섬김을 실천하면서도 복음의 핵심을 견지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 세상의 기준은 변동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롬 11:36).

가정과 일터, 교회, 각자가 처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다림줄’ 삼고, 복음을 실천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성경적 세계관’이다.

“성경적 세계관은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진리와 사랑, 공의와 은혜를 실천적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아닌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우선하여 묻게 되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타인과의 관계, 사회와 문화, 세상을 바라보는 판단 기준까지 왜곡되었다.

셋째,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과 세상을 방치하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간을 ‘구속’하셨다. 복음은 단순한 위로나 도덕적 교훈이 아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을 회복시키고, 죄로 왜곡된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넷째, 이 구원의 서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진행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

수직 여부를 확인하는 도구다. 시각적으로는 반듯해 보여도 다림줄로 측정해 보면 기울어진 상태가 드러난다. 인간의 삶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선하고 아름다운가?’, ‘무엇이 정의로운가?’, ‘고통과 행복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세상은 끊임없이 자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다림줄은 시대의 유행이나 여론, 개인의 감정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

다만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 성경적 세계관은 세상을 비판하거나 타인을 정죄하기 위한 공격적 무기가 아니다. 세계관이라는 다림줄

십자가의 돛대에 묶인 왕과 돌아온 탕자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 <오디세이>에 대한 성경적 리뷰



김진국 집사
(한강공동체,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교수,
〈따뜻한 심리학〉 저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2026)를 보고 나면 이상한 질문 하나가 떠오른다. 오디세우스는 마침내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왜 다시 바다로 떠나는가? 20년 동안 그토록 돌아가고 싶었던 이타카에 도착했다.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를 다시 만났으며 궁전도 되찾았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놀란은 호메로스의 결말처럼, 그를 다시 왕좌에 앉히지 않는다. 오히려 오디세우스는 왕위를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넘기고, 페넬로페와 함께 서쪽 미지의 바다로 떠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디세이>는 더 이상 영웅의 귀환 이야기가 아니다. ‘어떻게 집에 돌아갈 것인가?’ 보다 더 어려운 질문, 곧 ‘집에 돌아온 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야 하는가?’를 묻는 영화가 된다.

탕자의 비유와 오디세우스의 비극

성경에도 집을 떠난 한 사람이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떠난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돼지가 먹는 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된다. 탕자는 비로소 자신이 어디에서 떠나왔는지를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간다. 오디세우스는 탕자와 같은 사람이 아니다. 탕자처럼 귀환이 필요한 인간이다.

오디세우스의 비극에는 인간의 지혜가 가진 양면성이 있다. 그의 지략은 승리를 만들었지만, 동시에 죄책감의 근원이 된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위험해진다.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어느 순간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착각으로 변한다. 오디세우스의 방향을 단순히 ‘교만했기 때문에 신에게 벌을 받았다’는 신화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오만(hubris)’의 개념으로만 해석하면 이 영화의 깊이를 놓친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오히려 더 현대적 질문을 던진다. 전쟁에서 승리한 영웅은 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가? 승리를 만들어낸 지략이 왜 그의 영혼에는 상처가 되었는가? 그래서 오디세우스의 항해는 외부의 모험인 동시에 자신의 기억으로 들어가는 여행이다.

탕자는 돼지우리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오디세우스는 전쟁의 기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다. 회개는 단순히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나에게 돌려주었던 영웅의 이야기가 무너지는 것이다. 나는 좋은 사람



오디세우스가 배의 돛대에 스스로 묶인 모습 영화 <오디세이> 중의 한 장면(왼쪽), 렘브란트 <탕자의 귀환> 1662년경. 러시아, 예르미타주 미술관(오른쪽).

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안에도 잔인함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는 것. 정의를 위해 싸웠다고 믿었는데, 그 정의 뒤에 욕망과 분노와 복수심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융 심리학의 언어로 말하면 이것은 ‘그림자’를 만나는 순간이다.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어 하는 자기 모습만 의식에 올려놓고 살아간다. 그러나 억압한 어두운 면은 사라지지 않는다. 언젠가는 꿈이나 갈등, 실패와 죄책감의 형태로 돌아온다.

회개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리고 십자가

오디세우스의 항해는 그래서 외부의 모험이면서 동시에 내면의 그림자를 만나는 여행이다. 하지만 여기서 성경과 융의 길이 갈라진다. 융에게 자기(Self)를 찾아가는 길은 내면의 통합을 향한 여정이다.

반면 성경에서 회개는 자기 이해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향한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과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본질적으로 유사하지만, 똑같은 일이 아니다.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노래를 피하려고 자기 몸을 돛대에 묶는 장면은 영화 전체에서 가장 강력한 상징 가운데 하나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의지를 믿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돛대에 묶는다. 유혹이 시작된 뒤에는 스스로 풀려나지 못하도록 미리 자유를 제한한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돛대는 십자가를 떠올리게 한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고백한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가 강해서 죄를 이긴다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절대적인 주인으로 삼는 태도를 내려놓는다는 뜻이다. 세이렌의 바다 앞에서 필요한 것은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아니라,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믿을 수 없다’는 겸손이다.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에 의한 귀환’

칼립소는 망각과 안락함의 유혹을 상징한다. 사람은 고통보다 망각을 선택하기 쉽다. 상처를 직면하기보다 잊어버리고 싶고, 죄책감을 덜어다보기보다 바쁘게 살고 싶다. 그러나 기억하지 않는다고 과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귀환은 기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통과하는 것이다.

마침내 오디세우스는 이타카에 돌아온다. 거지의 모습으로 궁전에 들어가 활을 들고 구혼자들을 쓰러뜨린다. 그러나 피비린내 나는 복수가 끝났다고 해서 그의 내면 전쟁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여기서 크리스토퍼 놀란의 영화는 호메로스와 결정적으로 갈라진다.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서는 오디세우스가 왕좌를 되찾으며 질서가 회복된다. 그러나 크리스토퍼 놀란은 그에게 왕좌를 주지 않는다. 텔레마코스가 왕이 되고, 오디세우스는 페넬로페와 함께 다시 서쪽 미지의 바다로 떠난다. 오디세우스는 이타카에는 돌아왔지만, 예전의 오디세우스로는 돌아갈 수 없었던 것이다. 귀환은 과거의 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성경의 탕자 이야기로 돌아와 보자. 탕자도 먼 나라에서 돌아왔다. 그러나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고 묻지 않았다. 아버지는 달려나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며 잔치를 베풀었다. 이것이 오디세우스의 귀환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죄를 깨닫는다. 그러나 깨달음만으로는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저지른 폭력의 무게를 짊어지고 다시 떠난다.

반면 탕자는 자신의 실패를 아버지의 품에 맡긴다. 오디세우스는 이타카를 찾았다. 탕자는 아버지를 찾았다. 오디세우스의 귀환에는

죄책감이 남아 있다. 탕자의 귀환에는 잔치가 기다리고 있다. 바로 그 차이가 기독교 복음의 독특한 지점이다.

구원은 인간이 자신을 비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워진 자리를 은혜가 채우는 데서 시작된다. 오디세우스가 왕좌를 아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은 기독교적으로 ‘케노시스(Kenosis)’, 곧 자기 비움을 떠올리게 한다. 그러나 둘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 오디세우스의 모습은 그리스도의 자기 비움이 왜 인간에게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반면교사’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귀환이다.

세 가지 귀환

크리스토퍼 놀란의 <오디세이>는 우리에게 세 가지 귀환을 보여준다. 오디세우스는 이타카로 돌아간다. 융의 인간은 잃어버린 자기(Self)를 찾아 돌아간다. 그리고 성경의 탕자는 아버지에게 돌아간다. 이 세 가지 길은 서로 닮았지만 같지는 않다. 그래서 영화가 끝난 뒤 우리에게 남는 질문도 단순히 “당신의 이타카는 어디입니까?”가 아닌 “당신은 지금 어디로 돌아가고 있습니까?”이다.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우리는 모두 한 번쯤 길을 잃는다. 욕망 때문에 떠나기도 하고, 성공 때문에 떠나기도 하며, 상처 때문에 떠나기도 한다. 오디세우스는 긴 항해 끝에 이타카를 찾았지만, 다시 바다로 떠났다. 탕자는 먼 나라에서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겼다. 그 사이에 복음의 비밀이 있다. 인간의 귀환은 노력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구원의 귀환은 은혜로 완성된다.

당신이 돌아가야 할 곳은 단순히 과거의 집이 아니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집이다. 오디세우스의 마지막 항해가 우리에게 남기는 가장 깊은 질문은 이것인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가는 것과 집에 받아들여지는 것은 같은 일인가?”

복음의 대답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다!”

우리는 집을 찾아 헤매는 존재이지만, 귀환의 마지막 항구에서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은 왕좌가 아니라 은혜이다. 영광이 아니라 용서이다. 나 자신을 증명해 줄 승리가 아니다.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나를 아들로 받아주는 아버지의 품이다. 오디세우스는 이타카를 찾아 떠났지만, 탕자는 아버지를 찾아 돌아왔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우리는 인간의 가장 오래된 질문을 만난다.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어쩌면 신앙이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깊은 대답일 것이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결국 아버지의 집이다.

이슈(Issue) 바로보기!-성경적인 조직과 조직문화 4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난다!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할 때 가장 필요한 핵심은 ‘자기중심성을 버리는 것’이다. 자신의 나라와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죄악 된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사역을 위해서는 단순한 구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 세상 종의 멍에를 벗고 구원받은 자유인으로, 청지기로서의 삶이 필요하다. 음녀의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자신을 지키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이다.

사람은 상대방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용당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순수성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의 원천이 된다. 최근 많은 연구가 진행되는 ‘진성리더십’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지식이 대중화되면서 순수성의 중요성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 반증이다.

치유와 회복에 의한 비둘기 같은 순결함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뱀 같은 지혜로움

이다. 넘치는 정보의 바다에서 선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뱀 같은 지혜, 즉 분별력이 필요하다. 지혜로운 판단력은 조직에 성과와 생명력을 가져다준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솔로몬은 수수께끼 같은 세상의 수많은 재판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일천번제를 드린 다음 소원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기 위한 공생애 3년을 위해 30년 동안 지혜를 준비하셨다. 공생애 시작 전 다가온 마귀의 유혹을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다.

순결함으로 마음을 모으고, 지혜로 판단(분별)한 이후에 실행이 이루어진다. 실행에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권을 사용할 수 있다(창 12:2-3). 시장에서의 거래는 항상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어야 진행된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천하 만민을 축복하실 수 있다(창 22:18). 인류 역사에서 쌓은 모든 지식(big data)을 모아 AI 기술을 통해 플랫폼을 만들고,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연결된 열방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시대가 펼쳐졌다. 이 시대가 성경에서 약속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시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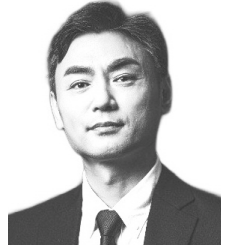
업무 수행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열심을 내어야 한다. 오늘 흘리는 땀으로 내일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만큼의 성과를 내기 위해 우리의 열심은 과도하게 강조되어도 모자람이 없다. 또한 지도자는 사람들의 열심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열심으로 인해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지식과 현실의 간격이 커지기 때문에 개인과 조직은 늘 양심과의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열심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맡은 자에게 주시는 치유와 회복, 영적 분별력, 그리고 축복권 같은 영적인 원리를 통해 도전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용기와 하나님의 기이한 인도하심을 체험해야 한다.

조직에서 업무를 수행한 뒤에는 냉정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100%의 평가와 100% 배려가 필요하다. 배려 없는 냉정한 평가는 메마른 조직문화를 만들어 내고, 냉정한 평가 없는 배려는 무능한 조직문화를 만든다.

우리는 먼저 업무에 관한 냉정한 평가를 해

야 한다. 그 이후에 평가 결과를 전달할 때 배려가 요구된다. 일을 잘하지 못한 직원에게 평가 결과를 냉정하게 전달하면 할 일은 했다는 마음과 함께 일부 불편한 느낌을 갖는다. 이때 하나님은 사랑으로 전달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신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든 리더는 함께하는 직원들에게 묵화자적인 마음과 접근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묵화를 맡기셨다. 우리의 모든 일은 예수님의 증인 된 삶을 살 수 있는 현장이다. 목표의 성취가 아니라 목표를 성취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고, 조직을 통해서도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가 연약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했듯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박성진 총장
(OCC공동체,
한동대학교 총장)

The 깊은 묵상

기도에 대한 오해와 반성, 그리고 깨달음

귀한 사역을 오랜 기간 하시다 은퇴하신 장로님과 담소할 기회가 있었다. 이런저런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게 무척 격려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것은 “기도가 늘 어려웠고, 지금도 기도와 씨름합니다”라는 말이었다. 나 역시 동일한 문제로 오랜 시간 갈등해 왔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장로님과의 만남 이후, 기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러다가 기도 전반에 걸쳐 우리가 오해하는 면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반성과 깨달음도 있었다.

우선 기도에 대한 오해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도에 두 측면이 있다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communion) 속에 올려드리는 기도(예를 들면 순복음교회나 천주교에서 드리는 기도 방식)와 복음에 기반을 둔 기도(장로교 등 개신교에서 드리는 기도 방식)가 있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거나 고집한다면 ‘반쪽 기도’가 될 수 있다. 실상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감 속에서 복음의 귀중함을 기억하며 기도를 드려야 한다. 결국, 두 가지가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한다.

둘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간 내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실까?’ 등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당장 내 눈앞에 당면한 문제들(건강, 경제적 이슈, 진로, 자녀 문제, 관계의 어려움 등)에 대한 간구와 평안함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치 채무자인 양,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

인가를 달라고 하고, 상황이 개선되기를 요구한다.

예를 들어 결혼한 아들 부부가 오랜만에 부모 집을 방문했다. 그런데 방문하자마자 부모의 근황에는 관심이 없고, 곧바로 이사 가는데 필요한 목돈과 셋째 아이 학원 등록금과 스포츠용품 구입에 필요한 돈 이야기만 꺼낸다. 게다가 둘째 아이가 학군 좋은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까지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

하나님은 왕이신 분, 우리의 아버지인 분, 참 목자이신 분, 친구 되시는 분, 남편 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앓고 섬과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시다. 또한 우리의 성장을 위해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함께 통과하시며 가슴 아파하시고 애절하게 괴로워하시는 분이시다.

그간 해왔던 기도에 대해 반성해야 하는 면들도 기억났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정작 기도할 때는 나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께 보여드리지 않았다. 심지어 감추거나 포장까지 했다. 왜 그럴까? 성장기에 받았던 가정교육과 성인이 되어 경험했던 사회생활에서 정직한 감정이 허락되지 않았고, 부모나 상사에게 늘 잘하기를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세월이 가며 몸에 배어 가면 쓰고 사는 것이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나는 올바른 기도를 위해 실천하는 것들이 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역에서 내가 정직해야 하는 면들을 일일이 노트에 적고, 그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내가 교정할 것들은 물론이고, 당신이 기뻐하시거나 칭찬하시는 면을 세세히 말씀해 주셨다. 그 결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시작되었다.

또 다른 반성은 기도할 때 내 관심과 사랑하는 것들의 순위가 드러나면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누추한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욕과 고통을 예수님이 받게 하셨으며, 한 방울의 피도 소중한데 무려 4리터의 피를 쏟게 하셨다. 결국 예수님은 죽음으로 그 고귀한 사랑을 보이셨건만, 나는 엄청난 은덕을 입은 자임에도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턱없이 부족했다. 내가 부끄러웠다. 회개 이후 주변 사람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너그럽고 긍휼하며 참을성 있게 대하게 되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몇몇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결단하게 하셨다.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기도가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과 소망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가뭄을 만나고, 어려움과 고통을 통과한다. 이때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상황을 잘 견디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열악하거나 최악이라도 그 자체를 감사하면서 찬송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신의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간구할 때 당연히 빵과 생선, 그 이상을 주시지 않을까(마 7:9-11).

암울한 십자가 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며 몸을 기꺼이 맡기셨듯이, 우리에게도 믿음과 순종이 필요하다. 육신의 부모님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일까? 자녀들이 자주 찾아와 소통해 줄 때 아닐까? 그간의 수고에 고마워하고, 동시에 나이 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 아닐까? 우리는 상황을 초월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한다. 기도는 천국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그 노력에 하나님 아버지가 문을 열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



성주명 장로
(여의도공동체)

서대문공동체
제주도

‘Unshakable!(흔들리는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라)’를 주제로 중국 권역의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자 제주도에 모였다. 서대문공동체의 주된 사역은 집회 기간 청소년들의 신앙 훈련을 위한 중보기도와 함께 매 끼니 간식을 공급하며 청소년들의 영양을 돌보는 일이었다. 우리의 미션은 한 마디로 ‘부모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였다.

사역팀이 정해진 순간부터 공동체에서는 매일 하루 4번 리더십을 중심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그 내용을 공동체에 공유했다. 모두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면서도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팀원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보완해 주는 모습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 내 직업이 오랜 기간 음식을 다루는 ‘셰프’라는 것을 공동체에서 귀한 은사로 여겨주었고, 보이지 않는 많은 부분에서 나의 의견을 반영하고, 인정해 준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출발한 김포공항에서 제주 공항까지 비행은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듯한 설렘이었다. 숙소 도착했다니 우리와 함께 등록하기 위해 로비로 들어오는 청소년들이 보였다. 그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은총이 더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음 날, 우리는 ‘은혜의 손맛’이 담긴 소세지빵을 만들었다. 구운 빵과 음료가 도착하자



서대문공동체가 청소년들에게 준비한 간식을 나눠주고 있다.

모두가 군병처럼 일렬로 서서 소세지를 튀기고 피클과 소스를 넣어 포장했다. ‘Unshakable’ 스티커를 하나하나 붙이며 학생들이 새 힘을 얻기를 기도했다. 셋째 날에는 300개의 샌드위치를 정성껏 준비했다. “정말 맛있을 거야”라고 서로 격려하며 준비한 간식을 청소년들에게 전달했다. “맛있고 특별하다”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어깨에도 힘이 더해졌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완고한 믿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했었다. 그

러나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게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믿음의 조상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게 되었다. 부모님이 모두 떠나신 뒤에는 믿음의 가정인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다. 20년 광야 같은 삶 속에서도 나를 기다리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믿음의 가정과 작은 집, 사랑하는 손녀딸을 허락하셨다.

가장으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만 했을 뿐,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지는 못했다. 이제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대문공동체 제주 아웃리치를 신청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참여했던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 같다. 중국 선교사 자녀들과 현지 청소년들을 섬기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은혜를 부어주셨다.

제주 아웃리치 셋째 날 밤, 예배에 함께 참석해서 청소년들의 불길 같은 찬양과 통성기도를 보았다. 그 충만한 은혜가 나를 압도했다.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품었으면 좋겠다. 말씀 앞에 당당하고 겸손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한다.

한 청소년의 “진실하게 믿는 것이 어려우니 믿음의 길에 혼란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으며, 기성세대가 믿음을 강조하면서 성공 지상주의를 강요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 사도 바울처럼은 못하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을 섬기고, 나누며, 하나님의 길에 동참하고 싶다. 귀한 사역의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온 마음과 시간을 다해 기꺼이 섬기고, 남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했다.



이인숙 성도
(서대문공동체)

남양주온누리교회 B공동체

남양주M센터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온누리교회에서의 첫 번째 아웃리치였다. 조금은 낯설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모든 것이 처음인데 도움이 되어야 할 텐데’라는 염려도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처음 경험하는 사역에 대한 설렘도 있었다. 다행히 일대일 제자양육을 해주셨던 김유옥 권사님 부부가 함께하셔서 더욱 반가웠다.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모든 것을 맡기기로 했다. 내가 잘 하려는 마음과 사역에 대한 인정, 욕심을 내려놓고 이주민들과 함께하는 모든 상황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마음에 함께하기를 소망했다. 모든 사역에 집중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듯 묻고,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했다.

사전에 세 차례 기도모임을 갖고, 1박 2일 동안 진행될 남양주M센터 아웃리치를 위해 작은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했다. 기도로 시작해 기도로 마치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서 온누리교회가 기도로 선교하는 교회로 불리는구나’ 생각했다.

‘Welcome 찬양’으로 이주민 성도님들을 맞이하며 예배를 시작했다. 내 마음에도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데,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지 생각하니 마음이 울컥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삶을 살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른다. 언어도



남양주B공동체가 이주민들을 위해 ‘Welcome 찬양’을 부르고 있다.

통하지 않고 정서도 달랐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들처럼 친숙하게 느껴졌다. 어느새 우리는 5개 국어로 예배드리며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부서별로 흩어져 각자의 사역을 시작했다. 온 힘을 다해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나의 의가 앞섰던 지난날의 사역이 떠올라 회개기도를 드렸다. 푸르른 잔디에서 축구하는 이주민 성도님들, 주방에서 맛있게 음식을 준비하시는 권사님

과 집사님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준비한 대로 되지 않는 순간에도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서로를 격려하며 즐겁게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나는 다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어놓은 것 같은 마음이 들어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했다.

하이라이트는 캠프파이어였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어로 모든 것이 통했다. 갓난아기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하나 되었다. 그렇게 밤을 보내고 아침

에 큐티와 나눔을 했다.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도 큰 감동이 밀려왔다. ‘언제 또 이렇게 5개 국어로 예배드리는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서로의 눈빛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는 듯했다.

바닷가에서 점心和 간식까지 챙겨드리고 버스에 올랐다. 오고 가는 시간이 꽤 길었지만, 임찬웅 집사님의 문화탐방을 통해 우리나라의 역사를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다. 돌아오는 길에는 서로의 간증을 나누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눔을 이어가다 보니 어느새 온누리교회에 도착했다.

이번 아웃리치를 다녀오고 나서 딸과 함께 남양주M센터 인도 예배에 참석했다. 또 한 번 큰 감격으로 예배드리면서 이번 아웃리치가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일상이 되기를 기도했다. 다음 아웃리치에는 가족과 함께 참여해야겠다고 결단했다.

사실 나는 25년 동안 알코올중독자로 살아왔다. 하나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감사드린다. 인생의 반 이상을 세상적으로 방탕하게 살아가며 많은 죄를 지었기에 이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다.



김규양 집사
(남양주B공동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S-브릿지공동체
은혜교회

지도 위에 밝혀진 희망의 불빛

S-브릿지공동체 국내 아웃리치 공고가 떴을 때 나는 기도와 말씀 목상이 잘되지 않았었다. 은혜교회 아웃리치가 ‘미스바 통일 선교회’를 섬기는 사역이라는 것을 알고, 저조했던 나의 신앙도 회복하고, 수련회 스태프로 사역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대되어 신청했다.

우리 조에는 탈북민 성도님 여섯 분이 계셨고, 나와 팀 리더님이 함께 투입되었다. 처음에는 탈북민 성도님들을 잘 대할 수 있을지, 혹여 조별 활동을 하면서 내가 어르신들을 대할 때 실수하지는 않을까 걱정했다.

은혜교회 아웃리치는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블레싱 담당 팀장님께 받은 말씀카드의 <마태복음> 11장 29절을 읽고 또 읽었다. 그중에 눈에 들어온 단어는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겸손함’이었다. 이 단어를 계속 마음에 새기며 예수님처럼 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사역에 임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가진 세상적인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고, 3일 동안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탈북민 성도님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자고 다짐했다. 특히 내가 맡은 조의 성도님 여섯 분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더 많이 웃고 세심하게 챙겨드리기 위해 힘썼다.

탈북민 성도님들은 중간중간 간증을 나누고, 찬양을 부르며 춤을 추고, 직접 작성한 시를 낭독하기도 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내 마음에도 고스



S-브릿지공동체가 탈북민 성도들과 함께 성극을 하고 있다.

란히 전해졌다. 이분들은 산전수전을 겪고, 목숨을 걸고 남한 땅으로 왔다. 이곳에 와서도 외로움과 싸워야 했다. 그들에게 성경 말씀과 기도, 교회 공동체가 안식처 되어주었다.

은혜교회 김에스터 목사님의 설교와 간증을 들으며 두 가지를 확실히 배웠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욱 커졌고, 또 다른 하나는 간절한 기도가 쌓이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도 하나님의 손으로 기적같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었다.

김에스터 목사님이 탈북민 사역에 임하시는 모습을 생각하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떠오른다. 기도가 잘되지 않고 막혀 있던 나에게 김에스터 목사님의 설교는 기도의 중요성과 힘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일상으로 돌아간 뒤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지, 실제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다.

둘째 날에는 세족식을 하고, 모두 함께 커다란 대한민국 지도에 촛불을 하나씩 꽂아놓고

나라를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다. 세족식에서 한 어르신의 발을 씻겨드리며 봤던 그분의 평안한 표정이 계속 생각났다. 지도 위에 하나둘 밝혀지는 촛불을 바라보는데 눈물이 났다. 지금도 북한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지도 위에 밝혀진 촛불이 어느새 희망의 불빛으로 보였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언젠가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남북통일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함께 조별 활동을 했던 탈북민 성도님들의 얼굴과 환한 미소가 지금도 생생하다. 수련회 현장에 있던 우리는 각자 살아온 배경과 환경은 달랐지만, 하나님을 향한 한마음으로 연합해서 예배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련회 주제 말씀이었던 <마태복음> 5장 14절을 곱씹으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생각했다. 앞으로도 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삶과 교회 사역에 임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정혜윤 성도
(S-브릿지공동체)

양재JDS 21기
라오스

‘잘하는 선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

나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넘어 기독교를 매우 싫어했었다.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아웃리치 간증까지 하게 하셨다. 죄인 된 나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번 라오스 단기선교는 내 인생 첫 번째 아웃리치였다. 출발을 앞두고 기대와 걱정이 함께 밀려왔다. 솔직히 가장 큰 걱정은 많은 사람에게 들었던 이야기 때문이었다.

아웃리치 가면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고, 팀원들끼리 크게 다투는 경우가 많으며, 심지어 돌아온 뒤에도 서로 얼굴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우리 팀만큼은 서로 사랑하고 싸우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다. 그때 목사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었다.

“아웃리치 가서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선교를 잘하는 사람을 보내실 거라면 여러분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하라고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배우라고 보내십니다.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지적하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붙잡아야 할 것은 ‘분쟁 없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준비 기간 내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다.



양재JDS 21기팀이 라오스 현지 아이들과 찬양하고 있다.

라오스에서 현지 선교사님을 뵈고 만감이 교차했다. 외국인의 선교 활동이 자유롭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욕심내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 존경 그 자체였다. 하나님을 믿기 오래전, 파키스탄으로 선교를 떠나는 처형 부부를 보며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 때문에 가족을 희생시키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던 내 모습이 생각났다. 그때는 하나님도, 선교도 잘 몰랐고 그저 세상적인 기

준으로만 판단했었다. 이번에 라오스에서 선교사님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때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했는지 깨달았다. 하나님께 참으로 죄송한 마음이 들어 눈물이 났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형제님들과 아침과 저녁에 함께했던 나눔이었다. 사실 출발하기 전에는 사역이나 SUM(위임), 전도 같은 일정이 가장 기억에 남을 거로 생각했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 내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기억은 숙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간절히 기도했던 장면이었다. 형제님들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정을 보냈지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모두 달랐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어떤 날은 나눌 것이 너무 많고, 은혜가 넘쳐서 새벽 3시가 넘도록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직장도, 살아온 환경도 모두 달랐지만,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함께 웃고 울며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달았다.

라오스 단기선교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크게 보여주신 것은 화려한 사역이나 눈에 띄는 기적이 아니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걸어갈 때 그 공동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이었다. 아웃리치는 내게 ‘잘하는 선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세’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줬다. 하나님이 지금도 선교지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 귀한 시간이었다.



송훈 성도
(양재JDS공동체)

관악금천공동체
충청남도 보령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되갚을 차례

온누리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지 어느덧 20년이 흘렀지만, 그동안 나는 교회의 걸모습만 스쳐 지나듯 그림자처럼 신앙생활을 해왔다. 예배당에 앉아 있어도 마음은 늘 다른 곳에 가 있었고, 신앙은 그저 습관처럼 몸에 걸친 옷 같은 것이었다.

그러는 사이 모태신앙이었던 남편과 유아세례를 받았던 두 딸의 신앙이 점차 식어갔다. 둘째 딸은 사춘기를 거치며 하나님의 존재마저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가장 가까운 가족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나는 정작 무엇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내 삶의 전부이자 우상이었던 첫째 딸의 재수 생활을 계기로 고난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다. 딸을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시간 이야말로 형식뿐이던 내 신앙이 처음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그 은혜에 힘입어 일대일제자양육을 수료하고, 순예배에 참석하기 시작하면서 인생 처음으로 아웃리치에도 참가하게 되었다. 비록 하루, 짧고 낮은 일정이었지만 순장님이 섬기는 '행복사진관' 사역을 도우면서 전도의 열매를 눈으로 확인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헌신하는 청리중앙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깊이 회개했다. 부족한 것이 많은 현장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분들의 모습이 내 안에 있던 불평을 부끄럽게 만들었다.



함께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교제를 나누는 관악금천공동체 아웃리치팀과 청리중앙교회 성도들.

폭염 속에서도 한 영혼을 위해 노방전도에 나서는 그분들의 뜨거운 믿음에 비해,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만 누리려 했던 내 신앙이 얼마나 편협하고 이기적이었는지를 깨달았다. 그 부끄러움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아 나를 돌아보게 했다.

이번 아웃리치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예배를 드리지 않던 남편을 운전 핑계로 설득해서 사역지인 충남 보령까지 함께 내려갔다. 사실 큰 기대 없이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 사역지 앞에서 나를 내려주고 홀로 돌아서는 남편을 보면서 원망보다는 이 정도의 걸음이라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조용히, 그러나 간절히 그를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나의 얇은 생각을 훨씬 뛰어넘었다. 사역을 마치고 나를 데리러 온 남편을 향해 단 5분 만에 공동체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모여들어 간절하게 안수기도를 해주셨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그 순간에 나는 그저 멍하니 서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자격 없는 우리 가족에게 허락하신 과분한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스스로 '탕자'라 부르며 밝게 웃는 남편의 모습에 깊은 감사를 느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나는 운전대를 잡은 남편의 옆모습을 몰래 바라보며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 신앙이 더덕진 것이 남편 탓인 줄로만 착각하고 살았는데, 시간을 돌아켜보며 남편이 나를 처음 교회로 이끌어 준 고마운 존재였음을 깨달았다. 정작 뒷걸음질 친 것은 나였는데, 오랫동안 그 사실을 외면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나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 받아주다가 남편이 먼저 지쳤던 것이기에, 이제는 내가 남편과 가족을 위해 기도의 파수꾼으로 나설 차례다. 늦었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오히려 새로운 사명을 발견한 셈이다. 나를 위해 묵묵히 버텨준 남편의 헌신을 가슴에 새기며,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되갚을 차례라는 것을 안다. 머지않아 우리 가정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한다.



장혜진 성도
(관악금천공동체)

이촌공동체
일본

'최고의 행복'을 놓치지 말라!

작년 공동체 아웃리치에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참석해 많은 은혜를 받았었다. 올해도 온 가족이 다시 참석하기를 소망하고 있었는데, 아웃리치 신청 마감 무렵, 갑자기 장모님이 체장암 4기 진단을 받으셨다. 아웃리치를 5개월 앞둔 시점에 온 가족이 치료와 간병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앞으로 상황이 불확실해서 아웃리치를 포기하려고 했다.

그런데 아내와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림에도 이번 일본 아웃리치에 우리가 참석하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을 주셨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돌보실 거라는 마음으로 아웃리치 참석을 결정했다. 아웃리치 준비 기도를 하면서 일본이 얼마나 영적으로 눌러있는 땅인지, 하나님이 그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 팀원 모두의 중보기도로 이촌공동체 일본 아웃리치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우리 팀의 사역은 일본 우에다온누리교회를 섬기는 것이었다. 우에다온누리교회는 고령 성도가 다수인 작은 교회로, 도움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도착 둘째 날, 우에다온누리교회에서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코리안 페스티벌'을 열었다. 준비한 한국문화 체험과 요리, 팔찌 만들기 등을 하면서 성도들과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서로 언어가 잘 통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교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시간을



일본 우에다역 근처에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이촌공동체 아웃리치팀.

가졌다. 즐거워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우리 마음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가득 찼다. 오후에는 우에다역 근처에서 팀별로 전도지를 나눠주며 노방전도에 나섰다. 급하게 준비한 짧은 일본어로 가능할까 싶었지만, 성령님이 예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나섰다. 많은 사람이 거절했지만, 낮은 한국 사람의 어설픈 일본어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릴 수 있어서 감사했다. 무엇보다 우리 팀원 중에 초

등학생 2명이 있었는데,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모습에 크게 감동했다. 셋째 날에는 주일예배에서 준비한 특송을 하고, 성도들에게 점심을 대접했다. 같은 말씀을 듣고 각자의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또 다른 감동과 감사가 있었다.

오후에는 주변 일본 교회들이 연합해서 전도콘서트를 개최했다. 우리는 안내와 부모와 함께 온 어린이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다. 넓은 콘서트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손을 들고 찬

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복음의 불모지라 여겨지는 이 땅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본 땅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 무척 감사했다. 집회 후에는 미키 목사님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이 목사님을 위로하고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노방전도 때 나눠준 전도지와 콘서트 홍보물을 보고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있었고, 기독교 모임에 처음 나온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가 뿌린 작은 씨앗이 얼마나 풍성하게 자라날지 기대가 되었다. 아웃리치를 준비하는 동안 장모님은 계속 항암치료를 받으셨다. 그 힘든 시간을 겪으며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었드렸다. 장모님은 순예배에 다시 참석하기 시작하셨고, 믿음이 없던 처제 가족도 예배에 나오기 시작했다. 치료 중 간 CT 검사에서 배 안에 가득했던 암세포가 거의 사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축복을, '최고의 행복'을 놓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



한진수 성도
(이촌공동체)

아시아선교협의회 ‘복음과 인류의 미래’

9월 14~18일 인천온누리교회, 31개국 200여 명 참가

제15차 아시아선교협의회(AMA) 대회가 9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인천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주제는 ‘복음과 인류의 미래’ (사 43:19~20)다. 한국, 네팔, 대만, 우즈베키스탄, 뉴질랜드, 미국, 캐나다, 독일, 나이지리아 등 31개국에서 200여 명이 참가한다. 아시아 각국 선교협의회 지도자, 전 세계 선교협의회 지도자, 아시아 선교단체 지도자, 선교학 교수, 선교학자, 선교사 등이 대상이다.

이번 아시아선교협의회 대회에서는 매일 성경 주해와 주제 강의, 세계 선교 네트워크 보고 및 워크숍, 특순, 국가별 보고, 기도회, 설교 등이 이어진다. 주제강의는 AI, 디아스포라, 종교다원주의, 정의, 치유, 창조세계, 다음세대 등 7개 주제로 진행된다. 특순은 가스펠 보컬밴드 ‘크



아시아선교협의회(AMA) 대회가 9월 14~18일 인천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룩스’, 발달장애인 클래식 챔버 오케스트라 ‘사랑챔버’, CCM 가수 ‘장근희’가 한다. 설교는 이재훈 위임목사,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요하네스 나후웨이 목사(GBI마와르사론교회)가 한다.

아시아선교협의회(AMA) 대회는

1975년 창립된 아시아 지역 선교단체 연합체다. 아시아 교회의 선교 운동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왔다. 올해 대회에서는 지난 사역을 돌아보고, 아시아 교회의 선교적 부르심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CGN 풍당, ‘목회 미디어 포럼’ 개최

부산·경남 지역 80개 교회 목회자 150명 참석

글로벌 선교 미디어 CGN 풍당이 지난 9월 8일(화) 시그니엘 부산 그랜드볼룸에서 ‘목회 미디어 포럼’을 개최했다. 부산·경남 지역 80개 교회에서 목회자 15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담임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리더십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이해하고, 목회 현장에서 미디어와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목회와 미디어’, ‘AI, 콘텐츠’ 등을 주제로 교회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을 나눴다. 강의는 CGN 임영광 풍당제작본부장 ‘목회를 돕는 도구, CGN 풍당’, 이

규현 담임목사(수영로교회) ‘목회자의 본질’, 이재훈 위임목사(CGN 이사장) ‘교회, 선교의 촉매제. Movement인가? Monument인가?’를 주제로 강의했다.

CGN 전진국 대표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는 故 하용조 목사의 비전으로 설립된 CGN은 위성방송으로 시작해 이제는 위성 인터넷을 통해 더 멀리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서 “이번 목회 미디어 포럼을 통해 AI 인류 혁명의 시대에 순수 복음 콘텐츠로 한국 교회와 동역하고 싶다”고 밝혔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자립준비청년과 함께 명절나기!

온누리울타리, 반찬 나눔 및 추석감사예배

온누리울타리가 자립준비청년들과 함께 감사와 기쁨을 나눴다. 지난 9월 8일(화) 주영광교회에서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명절 음식 만들기’ 행사가 열렸다. 온누리울타리 소속 봉사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온누리울타리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매월 반찬을 만들어 전달하고 있다. 9월은 추석을 맞아 갈비, 잡채, 전 등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자립준비청년 70여 명에게 전달했다.

온누리울타리는 추석 당일인 9월 25일(금) 자립준비청년과 함께하는

‘추석감사예배’를 드린다. 온누리울타리 봉사자들과 자립준비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명절 음식을 만들고, 웃놀이 등을 할 예정이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를 시작한 청년을 의미한다. 온누리울타리에서는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멘토링, 재정세미나, 창조과학세미나, 원데이수련회, 미니올림픽, 명절예배, 성탄예배 등을 하고 있다.

문의: 010-6479-0885

‘2026 온누리썸머북케이션’ 시상식

9월 13일 오전 10시 50분 온누리도서관

온누리교회 도서관에서 개최한 독후감대회 ‘2026 온누리썸머북케이션’ 시상식이 9월 13일(일) 오전 10시 50분 온누리도서관에서 열린다. 시상식에서는 팻타일 장로 기도, 노치형 목사 설교, 시상식, 축도 등

이 이어진다.

독후감대회 ‘2026 온누리썸머북케이션’에는 총 24명이 참가했다. 심사위원특별상 3명, 감동상 6명, 은해상 14명, 참가상 1명을 시상한다.

문의: 02-3215-3110

‘하트스쿨 사역자 과정’ 참가자 모집

10월 17일~12월 5일 양재 JDS홀, 충성홀

하트스쿨 사역자 과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양재온누리교회 JDS홀과 충성홀에서 진행된다. 3~4주 차(10월 31일, 11월 7일)는 서산온누리교회로 현장 실습을 간다.

하트스쿨은 가정 내 관계 회복과 자녀 양육을 주제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가정사역 프로그램이다. 초등학교 재학 연령을 전후한

어린이들과 부모가 레크리에이션, 미술치료, 놀이, 가족 공동작업 등을 함께하면서 친밀도를 높이고,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도록 돕는다.

하트스쿨 사역자 과정에서는 2027년 상반기 하트스쿨 ‘테이블 리더’로 활동할 사역자들을 양성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010-3710-9781

/ 홍하영 기자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QR 코드를 찍으면 온누리교회에서 진행되는 ‘선교지를 위한 기도모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NGO 더멋진세상, ‘과테말라 오수나 마을 구급차 지원’ 캠페인

NGO 더멋진세상이 과테말라 산 안드레스 오수나 마을에 응급환자 이송용 구급차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한다. 9월부터 10월까지 두 달 동안 진행한다.

오수나 마을에는 주민 5,700여 명이 거주하는데, 응급환자를 이송할 구급차가 단 한 대도 없다. 마을 보건소에서는 기초 진료만 가능해서, 응급상황시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해야 한다. 가장 가까운 종합병원까지는 차로 1~2시간이 소요되는데,

마을에는 개인차량이나 대중교통 수단도 많지 않아 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있다.

NGO 더멋진세상은 구급차 1대 구입에서 그치지 않고 현지 목회자, 주민, 보건 관계자가 함께 운영체계를 마련해 지역사회가 구급차의 운영과 유지관리를 주체적으로 하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후원계좌는 하나은행 573-910009-09905((사)더멋진세상)다.

문의: 02-2271-2248

2027년 상반기 결혼예배 예약 추천

9월 22일 화요일 오후 7시 양재 드림홀

2027년 상반기(1~6월) 온누리교회 결혼예배 예약 추천을 한다. 9월 22일(화) 오후 7시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지하 2층)에서 진행된다. 제비뽑기로 순번을 추천하고, 그 순서대로 결혼예배 날짜를 선정한다.

온누리교회 결혼예배를 예약하려면 예비 신랑과 신부 또는 양가 부모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온누리교회 등록 성도여야 한다. 예비 신랑과 신부는 타 교회 상관없이 등록

성도여야 한다.

결혼예배 예약 추천을 하러 올 때는 현금 200만 원(예약금)과 등록교 인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추천 당일 예비 신랑과 신부만 예약할 수 있다. 부모, 형제, 친척의 대리 참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온누리교회 결혼예배는 온누리교회 목사만 주례할 수 있고, 양재온누리교회에서만 식이 진행된다.

문의: 02-570-7505

온누리세계관학교 참가자 모집

온누리세계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15일부터 11월 10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들은 9월 21일(월)까지 아이스쿨에서 신청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온누리세계관학교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과 기준을 배운다. ‘모든 영역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온 세상에 은혜를 베푸시는가?’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문의: 010-5080-1067

순장학교 참가자 모집

순장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20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4시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9월 19일(토)까지 아이스쿨 또는 목회행정실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큐티스쿨 수료자, 일대일제자양육 양육자반 수료자 중에서 공동체의 추천을 받은 성도가 대상이다.

문의: 010-6391-2312

‘Why Israel?’ 참가자 모집

‘Why Israel?(와이 이스라엘)’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7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JDS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10월 16일(금)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Why Israel?(와이 이스라엘)’에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과 영적 상황을 살펴본다. 문의: 010-2930-2322

26기 이주민선교학교 참가자 모집

26기 이주민선교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북누리비전센터에서 진행된다. 이주민선교학교에서는 국내 이주민선교의 현황과 방법론 등을 살펴본다. 참가신청은 10월 20일(화)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4만 원. 문의: 010-5034-0092

‘캠퍼스 미션 콘퍼런스 in 대전’ 개최

9월 19일 토요일 오후 3시 대전 비전홀



사진은 지난 1월 25일 진행된 ‘캠퍼스 미션 콘퍼런스 in 남양주’.

‘캠퍼스 미션 콘퍼런스 in 대전’이 남양주, 평택, 영중에 이어 네 번째로 9월 19일(토) 오후 3시 대전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개최된다.

‘스물셋 젊음, 열방선교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유현목 목사(대전온누리교회 담당) 설교, 장광열 장로(2000선교본부 대표 장로) 기도, 주제강의, 김영생 장로

(대전온누리교회) 대전 선교 현황 발표, 조별 토론 및 발표, 조동욱 목사(대전온누리교회) 합심기도 등이 이어진다. 주제강의는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 본부장) ‘온누리 선교’, 정재호 집사(서빙고공동체) ‘온누리 선교조직과 융합축매선교’ 등을 주제로 한다.

캠퍼스 미션 콘퍼런스 목표는 국

내 온누리교회 캠퍼스를 순회하며 캠퍼스와 본부가 선교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캠퍼스 선교 사례와 아웃리치 성과, 선교 현황 등을 나누며 선교 방향을 함께 모색한다. 선교에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 박지혜 기자 wisdom7@onnuri.org

‘AI, 도구를 넘어 사명으로’

온누리교육선교팀 특강, 9월 19일 오전 10시 30분

2000선교본부 온누리교육선교팀이 9월 19일(토) 오전 10시 30분 서빙고청소년센터 2층 감성합양실에서 온누리교육선교 특강을 개최한다. ‘AI, 도구를 넘어 사명으로’를 주제로 윤정권 팀장(SWIM 세계인터넷선교협의회)이 강의한다.

참가신청은 QR 코드나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된다. 회비는 1만 원(현장 납부). 식사를 원하는 경우에만 회비를 납부하면 된다.

온누리교육선교 특강 ‘AI, 도구를 넘어 사명으로’에서는 AI를 사명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교육 선교 현장에서 활용하는 실제 도구와 사례를 살펴본다. 배운 내용을 사역과 일상에 연결해서 적용하는 방법도 배운다. 관심 있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10-4738-9094

/ 박지혜 기자

온누리교회 스포츠전도팀,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단 파송예배 참석

온누리교회 스포츠전도팀이 지난 9월 2일(수) 진천선수촌교회에서 드린 2026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수단 파송예배에 참석했다.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훈련에 매진하고 있는 국가대표 선수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축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파송예배는 기독교체육인연합회 찬양팀 찬양, 이풍우 장로(스포츠전도팀) 대표기도, 파송패 전달식, 한병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말씀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온누리교회 스포츠전도팀은 예배

이후 선수들에게 선물과 함께 응원 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박현 팀장(스포츠전도팀)은 “운동장의 주인은 하나님하신 만큼 선수들이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승패를 넘어 믿음의 본을 보이기를 소망한다”면서 “선수 한 사람 한 사람이 스포츠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온누리교회 스포츠전도팀은 스포츠초인들을 섬기고, 경기장 곳곳에 복음이 흘러가도록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하반기 관계기술훈련 입문반 참가자 모집

10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토

하반기 관계기술훈련 입문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7일부터 12월 5일까지 8주 동안 매주 토요일 서빙고온누리교회 오전 10시 20분, 양재온누리교회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교재포함). 가정, 일터, 교회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거나 감정 조절에 어려움을 느끼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관계기술훈련은 슬픔, 두려움, 분

노, 절망, 수치, 역겨움 등 6가지 부정적 감정을 이해하고, 기쁨을 회복하며, 정서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대로 살아가며 기쁨과 회복, 나눔의 존재로 세워지는 것이 목표다. 신학과 영성에 대인관계신경생물학과 심리학을 접목해 지식 습득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 적용하도록 실습 중심으로 진행된다.

문의: 02-3215-3532

양재 헬로맘 임신·출산 후 스쿨 참가자 모집

10월 16일~11월 6일 매주 금 오전 10시 30분

양재 헬로맘 임신·출산 후 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온라인(Zoom)으로 진행된다.

헬로맘 임신·출산 후 스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기 위해 말씀 안에서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결혼과 임

신, 출산,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관련 내용을 배운다.

참가신청은 10월 15일(목)까지 아이스쿨(schoolionnuri.org)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2만 원, 임신, 출산, 자녀 양육에 관심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10-5757-3427

/ 박지혜 기자

EHR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 참가자 모집

EHR 정서적으로 건강한 관계 오전반과 오후반 참가자를 모집한다.

오전반 강의는 10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 오후반은 9월 17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도곡교육관 온유홀에서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오전반 9월 30일(수)까지, 오후반 9월 16일(수)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3만 원. 교재는 개강일에 현장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EHS(정서적으로 건강한 여성) 수료자만 수강이 가능하다.

문의: 010-3799-1050(오전반), 010-3229-2040(오후반)

9월 화요성령집회 ‘광야를 지나며’

9월 화요성령집회가 ‘광야를 지나며’를 주제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이어지고 있다. 9월 15일 최성민 목사 ‘다시 일어서다’(왕상 19:1~8), 22일 최대홍 목사 ‘기다림의 이유’(행 2:1~13), 29일 이서진 목사 ‘말씀으로 서다’(마 4:1~11)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한다.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

일본어예배 전도집회 ‘온누리패밀리마츠리’

일본어예배에서 지난 9월 5일(토)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전도집회 ‘온누리패밀리마츠리’를 개최했다. ‘하나님의 가족’을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일본인 주재원 가정과 한일 가정, 차세대 등 약 243명이 참석했다. 교회와 아직 연결되지 않은 일본인 주재원 가정과 한일 가정 등을 초대해 복음을 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우형 전도사와 초노 아유미 자매가 사회를 보고, ‘하나님의 가족’ 연극, 찬양, 문화 체험 부스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다.

니시아마 사키 자매는 “아이가 또래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들어서 참석했다”면서 “저도 오랜만에 한국어교실 친구를 만나서 즐거웠고, 이런 기회가 있다면 계속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나진영 학생(일본어예배)은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연극도 관람하면서 한층 더 가까워진 것 같다”면서 “다음에는 오늘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초대해서 함께 교회에 오고 싶다”고 말했다.

카와무라 요시키 목사(일본어예배 담당)는 “교회가 여는 행사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모이는 것은 일본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광경”이라며 “복음의 씨앗이 분명히 뿌려지고 있는 만큼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소망했다.

Love Sonata 이와테 기도제목

- 9월 13일(일) 러브소나타를 통해 이와테현에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 9월 14일(월) 쓰나미로 아픔이 있는 이와테현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길
- 9월 15일(화) 일본목회자들이성령인에서연합하고지혜와능력이넘치게임하길
- 9월 16일(수) 집회장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수많은 영혼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 9월 17일(목) 이재훈 목사님께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서 말씀에 능력이 있기를
- 9월 18일(금) 특별게스트들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은혜의 통로가 되길
- 9월 19일(토) 한국 스태프들이 성령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연합해 섬기도록

〈생명의 삶〉 정기구독 신청



전도콜센터 02-3215-3377 언제든지 달려갑니다

■ 프랑스어예배 침례자 간증



이제는 결코
홀로 걷지 않을 것이다!

/ 알렉시아 라쉬넬(Alexia Rachinel) 자매(프랑스어예배)

나는 한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프랑스인 알렉시아(30세)다. 나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28년 동안 광야를 지나왔다. 다섯 살 때부터 파도림을 당했고, 여섯 살 때는 성적 접촉으로 순수함을 잃었다. 중학교 시절에도 괴롭힘이 이어졌다. 집안은 사기로 모든 돈을 잃었지만, 부모님을 위해 늘 웃는 얼굴을 연기해야 했다. 대학 시절의 파도림과 한국 유학 중 겪은 성폭력, 거식증,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별세, 코로나19로 인한 강제 귀국과 우울증까지 시련은 꼬리를 물었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살아남는 데 급급했다.

2024년 6월 한국에 돌아왔을 때, 우울증으로 하루 최대 14알의 약을 먹었다. 어느 날 아침, 약을 끊으라는 내면의 목소리에 이끌려 모든 약을 끊었다. 매우 힘든 한 달 동안 이해할 수 없는 힘이 나를 단단히 지탱해 주었다. 그 힘에 이끌려 프랑스어예배를 찾아 온누리교회에 오게 됐다.

첫 예배부터 깊은 편안함이 찾아왔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평생 찾아 헤매던 평안과 사랑을 마침내 만났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두려움 중 일부를 이겨내고, 나쁜 습관들에서 벗어났다. 여전히 두려움과 싸우고 있지만, 더 이상 혼자서 맞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며, 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가르쳐 주고 계심을 알기 때문

이다.

이제 내 소망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돕고,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 가는 것이다. 또한 내 길을 찾고, 하나님께서 날 무엇으로 부르시시는지를 깨닫고자 한다. 그 래야만 일상에서 일과 선택, 관계, 다른 사람 을 사랑하고 돌보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애쓰던 삶을 내려놓고, 나를 인도 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법을 배우고 싶다.

나는 지난 8월 30일 침례를 받았다. 물속으로 들어갈 때 옛 삶을 버렸고, 물에서 나오면서 앞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소망을 확고히 다졌다. 28년 동안 곁아를 지나면서 그토록 찾던 분이 하나님이었음을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 내 앞에 어떤 길을 열어 주실지, 그 길에 어떤 사람들을 두실지는 아직 모른다. 앞으로도 시련과 영적 싸움, 의심의 순간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결코 홀로 걷지 않을 것이다.

“네가 바다를 건널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네가 강을 건널 때 휩쓸려 가지 않을 것이다.
네가 불 속을 걸어갈 때 타지 않을 것이고 불
꽃이 네 몸을 태우지 못할 것이다”(사 43:2).

■ 프리덤스쿨 33기 수료 간증



비로소 참된 회복이 시작됐다!

직장 생활 10년 차, 과도한 일과 스트레스로 많이 지쳐있었다. 지친 마음을 다스리고자 상담을 시작했다. 상담을 받으며 그동안 나보다 타인의 시선과 요구를 우선시하면서 스스로 돌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힘든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타인이 아닌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싶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기예, 그분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지으셨는지 알고 싶어서 프리딤스쿨을 신청했다.

프리덤스쿨 2주 차 때 하나님 이 만드신 나의 참모습을 알게 됐다. 내가 마주한 내 모습은 스스로 생각하던 것과 정반대여서 놀랍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더 감사했던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내 모습을 아는 데에서 끝나지 않고, 만드신 모습대로 살지 못하도록 상처와 죄로 왜곡된 신념과 가치관이 어떻게 내 행동을 이끌어왔는지를 깨닫게 된 점이다. 이 깨우침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동기가 됐다.

왜곡된 신념과 잘못된 가치관 중 하나는 회개에 대한 나의 생각이었다. 프리덤스쿨에서 배우기 전까지 회개는 나에게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다. 회개란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매번 회개를 미루게 됐다.

그런데 프리덤스쿨에서 배운 회개는 마음의 가책을 받을 때마다 바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들이고, 잘못 생각했던 것을 취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었다.

프리덤스쿨 수련회 첫날, 조별 모임에서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던 묵은 죄를 고백했다. 두려움 속에서 꺼낸 죄의 고백이었다. 하지만 누구도 나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았다. 그 덕분에 수치심 대신 오랫동안 마음을 짓누르던 죄의 무게가 깨듯이 씻겨 내려갔다. 수련회 둘째 날 기도 시간에는 성경 속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바로 나 자신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런 수치스러운 나를 예수님이 변호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이 마음 깊이 받아들여졌다.

‘목욕한 사람은 이미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발박에는 씻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의 의미도 비로소 이해가 됐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모든 죄가 단번에 대속되었다는 사실이 비로소 나의 개인적인 사건으로 믿어지기 시작했다.

이제 참된 회복이 시작됨을 느낀다. 오랜 시간 나를 사로잡고 있던 잘못된 신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갈 앞으로의 여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일대일 동반자반 수료자

● 양재

■ 강남A

박인옥 김 양
박선민 최유식
안하준 권태경
양소는 이순자
이성일 김형일
이영희 임주영
이에한 신영미
이종태 신학철
임혜진 서연주
장애리 홍수정
지혜영 양정희

■ 강남B

김민채 구연미
류정은 강인자
백명준 성백훈
변만광 김경호
송민영 박수경
윤영재 김용범
최나영 김지연
차소연 신윤옥
추현탁 윤준택

■ 강남C

고원희 나미정
이수진 권은경
이혜경 김미래

■ 강남D

김태린 최인경
김혜진 박경숙
문하나 신현선

박남욱 김이경
유정근 김영주
윤은수 성장화
이승준 이백권
임은경 황수현
한희경 금현정
홍우정 배희숙

■ 경기A

문성인 이중훈
이수빈 김찬주
이영림 이혜선
한다숨 권해경

■ 과천의왕

박승범 서영찬

■ 도곡

고은영 김한순
김강범 백승화
김수련 김은희
김은정 김수아
유상희 최보영
이재성 이진신
이 중 이상준
이중서 이강신
조장은 손경혜

■ 분당A

김태영 이창숙
윤지는 이지연
최이림 배원상

■ 분당B

김경애 변정임

이영화 김정미
이진욱 원종덕
장병철 권운환
전혜정 변금려
황도경 황연신

■ 서초A

강택민 이상범
내애영 이미종
이항덕 지상목
이혜숙 서연숙

■ 서초B

곽명란 정수년
김원식 정희석
전 원 고 은
한상원 박준민
황동하 김찬욱

■ 서초C

김성욱 김인종
김태영 최 훈
배수민 이성림
오서영 김세화
이승희 김명숙
이창용 전동화
차영미 여유희
천은정 심정승

■ 송파A

김명애 박진희
김희정 정미선
양준모 우청석

■ 송파B

노수림 안혜민
백희숙 홍애경
한진규 김재영

■ 양재A

강홍원 여호선
권애정 임정에
김미숙 김준영
김설혜 이은실
문정인 신혜원
박경하 엄정민
박지영 정은실
윤상길 홍선우
이경백 박상근
이현숙 이지현
정주원 이경란

■ 양재B

김대현 임승섭
김은아 김정순
김희숙 손지희
변원미 이진숙
이순열 하정인
임재민 김홍준
정미진 오지환
최혁중 권혁은

■ 온밀음

김지영 송혜옥
신준호 김정후
이승주 김민수
임수민 원정림
장유리 이은혜

■ 온사랑

구애리 김민정
구은모 이주성
김초림 한도경

■ 온소망

고아영 박석연
박한성 이체우
송인성 최준환
신장섭 김선주
이재호 정우성
최지원 계가정
황정욱 강호균

■ 프랑스어예배

조수희 이혜심

■ 특별한초대

김진웅 이승환
이명호 정일욱
이하얀 양지민

■ 하나

정승란 함유정
홍수연 전소실
최경준 배성국

■ 공동체 없음

박정민 정미경
손대윤 이수훈
이다영 박은미
이정희 김광은
정준석 전병곤
황선일 이영준

■ Bridge33+

김리엘 광영선
김민수 금달웅
김성경 임선화
김승현 최태형
김태영 문갈총
박병욱 정승호
박채수 김은지
이동성 정상철
이동영 안제준
이윤경 이시연
이준석 이상현
이지호 안은성
임애진 이강은
정요한 김성규
정주영 최성문
주혜리 권호진
진연경 이현주

■ Harmony

구자훈 구교준
송범의 나호성
송인숙 이승례

■ Point5

김유라 표민지
조수연 장진명

● 대청

■ 갈릴

이정선 김현정

■ 여호수아

강나연 이만숙
강하림 애월영
고석진 서영석

■ Bridge33+

박유상 홍은주
국향기 박진희
권도윤 박준석
김선균 이경옥
김선헌 전진규
김예진 김혜정
김유나 이주연
김윤영 민성원
김은솔 이해옥
김진성 백승화
김한은 이숙인
김현정 이금옥
나지은 양은영
노희원 김정화
민덕기 조주익
박소희 정현주
박윤범 이창엽
박혜진 이지숙
방성미 민수정
순하영 윤선영
신민철 김예녹
신주연 현우정
신준열 이병성
신현중 송기선
안은솔 이은지
안재원 정양진
안주희 남 현
오수경 홍승연
오영석 김 준
우성무 이상선
유서현 김을희
유혜린 나은희
윤다은 이혜숙
윤소연 정호분
이동은 이상희

이명호 조형국
이서윤 박기영
이세라 오소희
이영인 이승미
이유림 손지영
이종혁 진호경
이주아 김민정
이자윤 서영란
이혜진 임화현
장민영 김윤숙
전고은 남다린
전주희 김우정
정미선 김영희
주친미 심윤지
최송이 정혜옥
최수린 황유미
최은서 정오경
홍수훈 윤훈준
황에진 광경현

■ 허브

고은찬 이준호
김선재 김동원
김수현 최보배
김예은 이정선
김윤서 김소희
김준영 김진우
김하윤 안혜준
안성호 양윤석
안준상 김용산
양수빈 추효진
이규현 최혁중
이예범 정승호
이예진 안미경
이재욱 신 현

이주영 김정국
정우현 박선만
조의선 노수영
채승헌 홍주화

■ J4U

김다는 최흥성
김리나 최진희
김민선 조수현
김예은 김수아
김윤진 김하나
김하나 최안선
송은연 김지영
윤경배 배준협
이윤아 김용희
이은혜 원현주
이재우 조준연
임주영 이혜미
조미희 윤희진
한지영 김병주

● 어린이

강나현 안아리
강서은 강원교
권기쁨 정인애
김나겸 이혜진
김유리 이호선
김윤재 김현태
김이레 현지영
박예지 안혜준
방찬울 성지혜
신동원 황희정
양주연 김현주
이도윤 김미정
이서윤 황진선

이소현 정지현
이시안 이 연
이예안 신혜진

장하준 장재호
정우빈 박수정
정유나 정진우

최은유 최혁중
최준우 박희란
함성현 이정선

일대일 양육자반 수료자

수료예매: 9월 20일(일) 양재 3부 예매
수료대상자: 양재 사랑홀
대상자: 5월 15일~9월 8일 사이에 완료 보고된 성도입니다.

● 양재

■ 권혁은 장로반

강지승
김기영
김지예
남기직
류시은
문은영
손모아
신경수
신진영
이병국
이윤경
이지우
이진영
최하영

■ 김칠주 장로반

관영식
관윤희
김광현
김민준

김성돈
김세윤
김세준
김옥화
김민권
김종석
김현영
김현지
김혜련
문미숙
박재화
박종민
박현희
변정원
서지은
안성은
이만호
이은숙
전송이
진선애
최우진
한혜정
황지연

■ 장로반

권세라
김수연
김신경
김윤진
박성주
손정우
송숙화
송 이
박종민
박현희
변정원
서지은
안성은
이만호
이은숙
전송이
진선애
최우진
한혜정
황지연

■ 박철웅 목사반

■ 박동현

고영란

구역회
김성인
김성한
김은실
김해남
김현일
김해진
남미영
노혜원
도은수
신현용
유예랑
이선미
이혜빈
임현준
황미영

■ 한복규 장로반

김남주
김마리아
김은영
송희정
우근영
윤주애

윤주영
이인숙
이정숙
이현영
최재석
한미정
한선희
한지오
홍은숙

장로칼럼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조청구 장로
(성동광진공동체)

사도 바울은 사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 사도라 불릴 자격도 없고, 많이 수고했지만 자랑할 것이 없으며, 다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 겸손한 사람은 누구나 좋아하지만, 드세고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은 모두가 힘들어한다. 온유는 성격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겸손이 밖으로 흘러나와 드러나는 태도이다. 사람이 타고난 기질은 잘 변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대로 살아가기 마련이다. 그래서 성격과 성품은 타고난 기질을 바탕으로 절제하는 가운데 갈고 닦아 형성하는 인격의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절제(節制)는 모든 상황 가운데 현명하게 행동할 수 있게 하는 올바른 척도와 방식이다. 절제는 어수선한 인간의 마음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기술로, 말의 무게를 가늠하고 적절히 조절해 사람들의 신뢰를 끌어내는 능력이다. 절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옳은 일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능력이기도 하다.

절제를 아는 사람은 한순간의 분노로 관계를 망치지 않으며, 탐욕을 부리다가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는 일을 하지 않는다. 마치 포도주를 제대로 즐기려면 별걱별걱 들어켜지 않고 한 모금씩 음미해야 하듯, 절제하며 스스로 다스리면 포도주의 맛과 향을 즐기며 인간도 포도주처럼 성숙해질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 모두 행복을 원하는데 어째서 행복한 사람이 극소수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절제’를 들었다. 우리가

불행한 건 절제되지 않은 힘이 너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힘이 있는 사람들이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힘을 쓸 줄만 알지 절제할 줄 모른다는 말이다. 하지만 겸손한 마음은 타고난 기질과 상관없이 바꾸어 살 수 있지 않을까?

일상의 평범한 삶일지라도 우리는 고되고 힘들 때가 참 많다. 남의 말은 잘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 있다. 처음에는 배려 차원이나 친밀감 때문에 들어주지만, 계속되다 보면 집중도가 떨어지고 피로해진다. 어쩌다 내 이야기를 꺼내도 상대가 공감은커녕 자기 주장만 하면 관계는 불편해지고, 다음에는 이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까지 들기 마련이다.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깊으면 소통과 공감을 이루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온유와 겸손의 성품을 지닌 사람으로 바꾸어 살면 삶이 조금은 편안할 텐데 말이다. 온유는 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하고, 조급한 사람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이다. 진정한 섬김은 온유와 겸손에서 나오고, 온유한 자가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다고 했다.

교회 공동체에는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가 참 많다. 그들은 겸손하고 절제가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가 좋고, 매사 섬세하고, 창의력이 풍부하다. 고난을 차분하게 견디고 회복력도 강하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과 인정이 많으며, 공감할 줄 알고 책임질 줄도 안다. 그런 신앙인 앞에서는 고개를 절로 숙이게 된다. 우리가 성경 지식이 늘어도 그 지식이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절제가 부족한 것이다. 지식 자체보다 그 지식을 어떻게 통제하고, 인내와 경건으로 이어지게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한 생명을 보여 주면서 이웃에게 덕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이 더 즐거워지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더욱 부흥하게 될 것이다.

권사칼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박인숙 권사
(신용산공동체)

나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구절을 일주일 내내 시시로 읊조린다. 설거지할 때, 길을 걸을 때, 전철이나 사람을 기다릴 때 읊조리다 보면 하루에 100번은 쉽고, 때로는 300번도 하게 된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잠 16:3).

최근에는 <잠언> 16장 3절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다.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나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사가 되어 그분이 이루신다는 말씀이다. 말씀을 꼭꼭 씹어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 담긴 달고 오묘한 뜻을 깨닫게 된다.

요즘 계획하고 있는 일과 해야 할 일을 생각하면 가끔 버거울 때가 있다. 눈을 감아버리고 이 나이에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든다. 하지만 그런다고 정작 편한 것도 아니고, 무기력해지기 일쑤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께 맡기라고 하신 것이다.

오늘은 웬지 영어로 말씀을 읊조리고 싶었다.

“Commit your actions to the LORD, and your plans will succeed.”

직역하면 ‘너의 행사를 뒤편지 주께 맡기면, 네 계획이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영어로 묵상하니 뜻이 더 쉽게 다가왔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결정은 여호와께 있다. 나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지만,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그 계획을 올려드리면 그분의 계획으로 바꾸어 그 일들을 이루신다. 내 생각보다 높으시고, 내 뜻보다 더 깊으신 성령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내 인생을 경영하실 것을 생각하니 기대가 됐다.

그리고 보니 ‘주께 맡기라’는 말씀이 성경 다른 곳에도 있었다(시 37:5-6, 뱀전 5:7, 시 55:22). 너의 길과 행사와 계획, 염려와 짐을 오롯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떠넘기라고 하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돌보시고, 붙드시며, 일하시겠다고 거듭 말씀하신다.

“날이 저물고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호와 아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

찬양이 절로 나왔다. 이 글을 동생과 몇 지인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동생이 자기 목장에 글을 올렸다. 한 권사님이 이 글을 읽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자폐가 있는 손자를 틈틈이 돌보는데, 아이 덩치가 클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다고 했다. 그 손자를 하나님 손에 맡기지 않고 혼자 가슴앓이를 한 것을 회개했더니 비로소 평안이 찾아왔다고 했다.

평소 존경하는 하늘우체통 비즈니스 대표 윤홍진 선교사님께도 답장이 왔다.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로 함께하고 계신지 영으로 깨닫게 됩니다. 꼭 필요할 때 정확한 말씀으로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비즈니스를 운영해야 할 방향성을 말씀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모든 염려와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가 일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일이 제가 해야 할 전부임을 깨닫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잘 보이는 곳에 크게 붙여놓고 묵상하며 주의 일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말씀으로 격려받으니 내가 힘이 났고, 그들 또한 그 말씀으로 힘을 받았다.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우리가 한 성령 안에 한 몸임을 새삼 깨달았다. 최고의 경영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일하시면 우리는 완전하다.

사역칼럼



김현 목사
(군선교팀 담당)

“목사님 이번에 논산 육군훈련소 세례식이 있습니다.”

군선교 담당장로님의 문자메시지를 받는 순간, 수천 명의 장병들이 울동하며 목청껏 부르던 ‘실로암’ 찬양 영상이 떠올랐다. 그 뜨거운 자리에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이 가게 된다는 사실이 기대되면서도, 대규모 사역에 대한 부담감이 엄습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교회인가? 선교에 목숨을 건 온누리교회 아닌가? 이 큰 사역에 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님이 동행하셨다. 군선교팀뿐만 아니라 장로합창단, 하늘대학부, 세리핌, 15명의 목회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장병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로 준비했다.

현장에 모인 모든 장병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했고, 우리도 그들과 함

께 실로암을 부르며 하나님이 임재가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기도했다. 박종길 목사님의 세례 서약으로 세례식이 거행되었다. 장병 1,400여 명이 진지한 마음으로 세례식에 임했다. 사역을 앞두고 가장 큰 고민은 세례식에 대한 장병들의 마음이었다. 선물과 게스트로 인해 출석률이 크게 차이 나는 군대 종교활동의 특성상 혹여나 가볍게 세례를 받으면 어쩌나 염려했다. 그러나 그 걱정이 무색할 만큼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장병들의 표정이 진지했다. 세례를 집례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 사역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에 대한 확신과 은혜가 밀려왔다.

주변을 돌아봤더니 집례하는 목사님들, 수종으로 섬기는 장로님들, 수건 봉사로 섬기는 권사님들, 장병들을 위해 기도하는 선교팀의 모습이 보였다. 모두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향한 기도와 사랑으로 그 자리를 섬기고 계셨다. 복음을 전하러 간 우리가 더 큰 감사와 기쁨을 품고 돌아온 귀한 자리였다. 이날 세례 받은 장병이 1,400여 명에 달한다. 이미 세례를

받은 장병들을 포함하면 1,700여 명이 함께 예배드렸다. 요즘 주요 대학 신입생 수가 2~3천명 선인 것을 고려하면, 대학 캠퍼스에서도 보기 드문 엄청난 수의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인 셈이다. 과연 어디서 이 많은 청년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겠는가? 이 많은 인원이 한자리에 모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을 수 있던 말인가?

장병들은 가장 빛나는 청춘의 시절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타지에서 외로움과 어려움을 공유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마음이 가장 겸손하고 가난한 이 시기는 복음이 심어지는 적기이다. 우리는 청년 복음화의 난제를 군선교로부터 풀어가야 한다. 교회는 지금, 기독 청년 비율의 급감으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인구 감소와 사회 고령화 여파도 크지만, 청년 전도를 위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 위기 속에서 군선교는 청년 복음화를 위한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군선교 하면 세례식과 간식 지원, 위문

집회 정도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입대 예정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특기를 살리는 입영을 돕고, 건강한 군 생활의 비전을 심어주는 ‘데이빗스쿨’, 병사들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군부대의 복음화를 위한 전략으로 육·해·공사관학교, 3사관학교, 간호사관학교 등 초급 간부와 사관생도들을 기독 리더들로 육성하는 ‘희망노트’, 군 복무 중에도 QT를 통해 말씀 중심의 삶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삶> 지원, CGN과 협력해 영화 ‘무명’과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상영하고, 간증을 나누며 기도하는 ‘영상선교’ 등 차별화된 사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 11월 7일 예정된 ‘1000회 기념 기도회’가 증명하듯, 매주 화요일 저녁마다 군선교를 통해 연결된 청년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 50만 국군장병 모두가 복음화되는 그날까지, 청년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발걸음은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서빙고 02.79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4: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등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등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등 5부 오후 4:00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본당 2부 오전 6:30 비전홀 월요치유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30 비전홀 화요Holy Impact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2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7:0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시간: 매주일 오전 11:20		장소: 선교관 1층 믿음홀 담당: 김철희 목사 문의: 010-5258-7525 S브릿지 예배 내용: 만 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2:00 두란노홀 문의: 010-9311-190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사랑홀 Love My Life 예배(사별자모임) 비대면모임: 매주 화 오후 7:30-8:30(Zoom) 대면모임: 매주 토 오전 11:00-오후 2:00 문의: 김희연 총무(010-3204-3815)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유치부~고등부(학령기)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시온홀 문의: 김세용 팀장(010-7183-5346)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20세 이상 청장년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홀 문의: 남주현 팀장(010-9811-7154) 꿈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미취학~중등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사랑홀 문의: 안선주 팀장(010-7979-4180)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일본어예배부(02-3215-3702)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B1 시온홀		영어예배 1부 주일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체육관, 2부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4 Youth Service 오전 11:30 온누리청소년센터 3층 소극장 / Love Zone(Pre-K-1st) / Joy Zone(2nd-5th) 오전 11:30 선교관 지하 2층 콘서트를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5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M미션 러시아예배 11:30 선교관 시온홀 / 몽골어예배 14:00 선교관 믿음홀 / 네팔어예배 14:00 선교관 2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 아랍어예배 14:00 본관 B102호(매월 첫주 선교관 202호) / 페르시아어예배 12:30 온누리청소년센터 강의실1 인천M미션 AllGen예배 14:30 소망홀 / 러시아어예배 14:30 믿음홀 / 중국어예배 14:40 사랑홀 / 몽골어예배 14:30 로잔홀 / 페르시아어예배 매월 첫주 토요일 11:00 로잔홀 안산M센터 ANEWS예배 1부 9:00, 2부 11:00 만나홀 / 몽골어예배 10:30 201호 / 미얀마어예배 10:30 202호 / 아랍어예배 12:00 도서관 / 캄보디아어예배 10:30 302호 / 네팔어예배 10:00 303호 / 베트남어예배 11:00 301호 / 인도네시아어예배 16:00 스타트리얼 동조합 / 우즈베키스탄어예배 14:00 301호 / 러시아어예배 10:00 온누리홀 / 필리핀어예배 14:00 온누리홀 / 태국어예배 14:00 만나홀 / 중국(청장년)예배 10:30 304호 / 대학청년부 14:00 303호 / 다문화 파워웨이브 11:00 305호 / 다문화 꿈방 11:00 1F		지역아동센터 / 다문화 예꿈 11:00 B101호 김포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703호 / 러시아어예배 14:00 703호 / 미얀마어예배 11:00 706호 / 몽골어예배 14:00(매월 둘째주 18:00) 706호 / 다문화 꿈방 11:00 705호 군산M센터 열방(차세대)예배 11:00 101호 남양주M센터 ANEWS예배 11:30 301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20: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20:00 304호 / 캄보디아어예배 11:30 304호 서산M센터 ANEWS예배 11:30 비전홀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비전홀 평택M센터 몽골어예배 11:00 2층 본당 / ANEWS예배 13:30 4층 열방홀 / 파워웨이브 11:00 4층 열방홀 / 다문화 꿈방 11:00 2층 차세대실 / 둔포 차세대 토요일 14:00 둔포성결교회 2층 화성M센터 캄보디아어예배 10:30 1센터 301호 / 네팔어예배 10:30 2센터 2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오후 4시 신관 누리홀 문의: 김재영 팀장(010-2539-5665) 나지원 총무(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00~11:00 장소: 서빙고 꿈아이홀, 양재 꿈터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를 운행		시안채플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서빙고 대청어머니기도모임 대학청년들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본관 B102호 문의: 010-3003-5910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 조방춘 주민, 노숙인과 함께 드리는 예배 매 주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용산구 후암로57길 9-3 문의: 010-4561-5192 군선교 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장소: 선교관 101호 문의: 군선교팀(02-3215-3214)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 환영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30-8:00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 문의: 010-5250-1233
---	--	--	--	---	--	--	--	---

양 재 02.573.9686 토요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3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일동제약 B1 11:3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1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1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고등부: 교육관 온유홀(A동 2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영아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2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1:5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사랑홀(숙명여고 강당)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고등부~20대) 시간: 매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우해진 팀장(010-9288-7041) 예수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장년 30세 이상) 시간: 매 주일 오전 11:30 비전홀B 문의: 강주희 팀장(010-4902-1022) 프랑스어 예배 설교: Samuel Hatangimana Maxime Szustak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9590-0059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정진모 목사 일시: 주일 오후 1:5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053-2179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 주일 14:00 JDS홀 마리아행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경찬홀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BEE 선교 기도모임 대상: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선교 사역에 관심 있는 모든 성도 일시: 매주 토요일 6:50-9:00 장소: 양재온누리교회 JDS홀 문의: 010-6422-8376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토요일예배 10:0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영아1부 9:00, 영아2부 11:30 / 유치1부 9:00, 유치2부 11:30 / 유년1부 9:00, 유년2부 11:30 / 초등1부 9:00 / 초등2부 11:30 / 소년1부 9:00 / 소년2부 11:30 / PW1부 9:00 / 중등부 11:30 / 고등부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한사랑예배(탈북민) 주일 오후 2:00 꿈아이홀 장애인예배 예수사랑부 주일 9:00 꿈아이홀 / 사랑부 주일 오전 11:30 꿈아이홀 중국어예배 오후 2:00 자동차백화점 506호
---	--	---	--	---	--	---	--	---

수원 031.895.6500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명지대학교 60주년 채플관 새벽예배 월~금 5: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수요성령집회 19:3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대학청년(주일) 14:00 ICT밸리 C동 1층 예배실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학생복지관) 영아 1부 9:00 / 영아 2부 11:30 / 유아 1부 9:00 / 유아 2부 11:30 / 유치 1부 9:00 / 유치 2부 11:30 / 유년 1부 9:00 / 유년 2부 11:30 / 파워웨이브 1부 9:00 / 파워웨이브 2부 11:30 차세대예배(명지대학교 창조예술관) 초등 1부 9:00 / 초등 2부 11:30 / 소년 1부 9:00 / 소년 2부 11:30		대전 042.825.3642 토요일예배 10:00 본당, 한누리(탈북민) 11:00 303호 일요일예배 1부 7:10 / 2부 9:00 / 3부 11:30 / 4부 젊은이예배 14:30 / 5부 대학부예배 14:30 누리홀 / 세종교육관 408호 1부 9:00 / 2부 11:30 / 3부 14:30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5:30 세종교육관 408호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00 본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19:30 본당 주일 차세대예배 예꿈1부 9:00 302호 / 세종교육관예꿈 11:30 407호 / 영아부 11:30 301호 / 유치부 11:30 302호 / 꿈팡1부 9:00 304호 / 세종교육관 유년부 11:30 402호 / 세종교육관 소년부 11:30 411호 / 유년부 11:30 304호 / 초등부 11:30 303호 / 소년부 11:30 비전홀 / 중등부 11:30 누리홀 / 고등부 9:00 누리홀 / 세종교육관파워웨이브 9:00 402호		남양주 031.515.3521 토요일예배 10:30 B2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B2 본당 / 2부 11:30 B2 본당 / 3부 13:50 B2본당 / 4부 (대학청년) 16:00 B2 본당 행복한하나예배(탈북민) 11:00 B1 소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B2 본당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B2 본당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B2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 1부 9:00, 2부 11:30 꿈아이홀(3층) / 유치 1부 9:00, 2부 11:30 꿈이들홀(3층) / 꿈팡 1부(초1~초6) 9:00 드림홀(2층) / 유년 11:30 드림홀(2층) / 초등부 11:30 비전홀(4층) / 파워웨이브 1부(초1~고3) 9:00 비전홀(4층) / 중등부 11:30 교육관 믿음홀(3층) / 고등부 11:30 교육관 소망홀(3층)		평택 031.651.9680 토요일예배 10:2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대학청년(주일) 14:30 본당 영어예배(주일) 11:30 선교관 화평홀 영어예배(주일) 키즈워십 9:30 선교관 화평홀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8: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꿈 예배실 / 초등부 11:30 3층 꿈팡 초등부실 / 유년부 11:30 3층 꿈팡 유년부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선교관 기쁨홀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2층 본당		인천 032.437.9686 토요일예배 9:50 본당 1, 2층 일요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3:50 본당 1, 2층 대학청년 16:00 본당 1, 2층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샤이닝홀 / 유아부 9:00, 11:30 누리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홀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꿈팡3부 13:50 드림홀 / 소년부 9:00, 11:30 믿음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9:00, 11:30 사랑홀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30 소망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본당 1, 2층 새벽예배 월~금 5:30 본당 1, 2층
---	--	---	--	--	--	---	--	---

강동 02.475.9686 토요일예배 10:30 본당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 14:00 프라미스(본당), 온유대학부(사랑홀) 차세대예배 예수님의 꿈아이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드림홀 / 초등부 11:30 사랑홀 / 중고등부 9:0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본당 금요기도집회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20:00 본당 새벽예배 6:20 본당		용인 031.331.8171 토요일예배 9:00 김사무엘홀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김사무엘홀 대학청년 14:00 박모세를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유치부 11:30 위더스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길보른홀 / 중등부~고등부 11:30 박모세를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예배 10:30 김사무엘홀 금요기도회 10:30 김사무엘홀 금요성령집회 20:00 시안홀(7~8월) 새벽예배 월~금 5:30 시안홀		영종 032.752.7937 토요일예배 10:00 3층 백향목홀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백향목홀(3층) 대학청년예배 14:30 언더우드홀(2층) 새벽예배 월~금 6:00 백향목홀(3층) 차세대예배 유아부 10:00 아펜젤러홀(2층) / 유치부 12:00 아펜젤러홀(2층) / 유년부 12:00 언더우드홀(2층) / 초등부 10:00 언더우드홀(2층) / 중등부 12:00 로제타홀(2층) / 고등부 10:00 로제타홀(2층) 수요오전예배 10:30 백향목홀(3층)		제주 064.794.8090 일요일예배 1부 8:00 / 2부 10:00 / 3부 12: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6:00 본당 차세대예배 예꿈아이(미취학) 1부 10:00, 2부 12:00 / 꿈팡유년부(초1~3) 1부 10:00, 2부 12:00 / 꿈팡소년부(초4~6) 1부 10:00, 2부 12:00 / 파워웨이브 중등부, 고등부 1부 10:00, 2부 12:00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금요성령집회 20:00 본당 대학청년 누림청년부 13:30		서산 041.665.9686 일요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본당 3부(대학청년부) 14:30 본당 새벽예배 월~금 5:2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11:30 드림홀 꿈이자라는팡 11:30 비전홀 파워웨이브 9:30 비전홀 주중예배 화요중보기도모임 10:30 본당 수요저녁 예배 19:30 본당 토요일선교기도모임 6:30 경찬홀
---	--	--	--	--	--	--	--	--

풍경 5주년 특별기획
K-CCM 글로벌 오디션

CGN

“녹화 도중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본 건 처음이에요.”

- MC 장성규 -

“너무 감동적이라 10시간이 넘는 녹화가 힘들지 않았어요.”

- 힐링멘토 조혜련 -

“수많은 음악 프로그램과는 분명히 다른 경험이었어요.”

- 힐링멘토 김조한 -

“참가자들의 실력이 너무 좋아서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있어요.”

- 힐링멘토 소향 -



세상을 치유하는 목소리

힐링보이스

9월 20일 오후 5시 첫 방송!

힐링보이스 시청안내

IPTV : KT Genie(237), SK Btv(292), LG U+(271)

풍경 주일 오후 3시 공개

CGN TV, 유튜브 주일 오후 5시 방송



'풍당' 다운로드

후원 / UNION SB

MEDIHEAL

법무법인 산지

MEGAZONE CLOUD

협력 /

K-CCM 한국기독교음악협회

국민일보